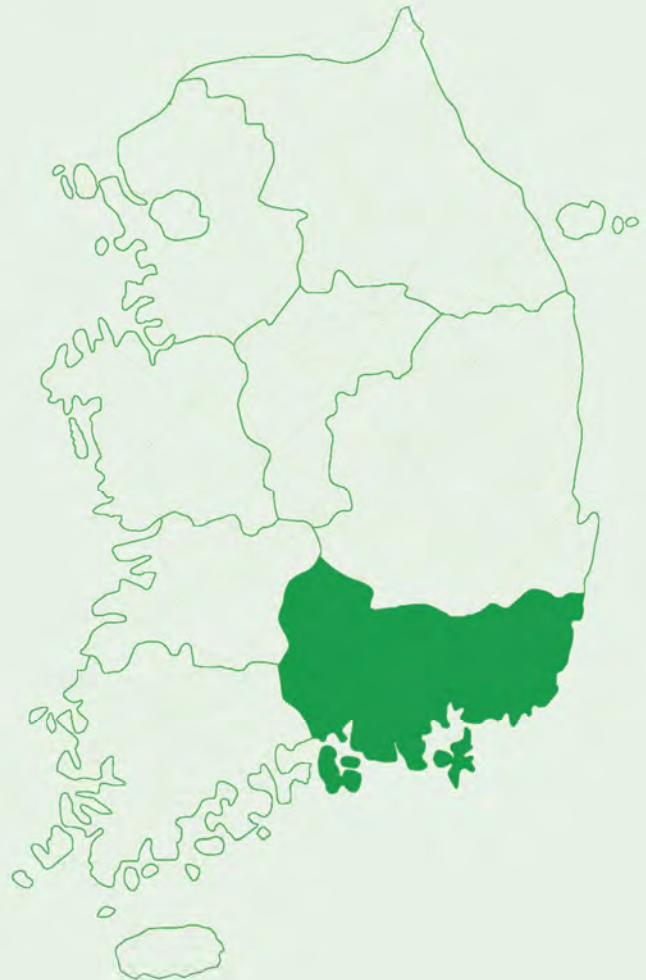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권역별 심포지엄

지역인재로 새로운 미래를

부울경권 | 지역기반 미래인재 전략

2022. 7. 14. (목) 14:00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



주최·주관 KRIVET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후원 부산광역시 부산광역시교육청 박수영 국회의원실 NRF 한국연구재단 재단법인 부산테크노파크 BISTEP 부산산업과학혁신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권역별 심포지엄

『지역인재로 새로운 미래를』

부울경권 | 지역기반 미래인재 전략



| 일 시 | 2022. 7. 14.(목) 14:00~17:20

| 장 소 | 부산광역시청 국제회의장(12층)

KRIVET  YouTube 채널 생중계

| 프로그램 |

시 간	세부내용	
14:00~14:10	개 회 사 축 사	류장수 원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형준 시장(부산광역시) 하윤수 교육감(부산광역시교육청) 박수영 국회의원(국민의힘)
14:10~14:20	기념 촬영	
14:20~14:50	기조강연	지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육성 방안 김형균 원장(부산테크노파크)
14:50~15:50	주제발표	지역대학 졸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동남권을 중심으로 안우진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전략팀) 지역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정은진 센터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 부울경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김종한 선임위원(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성대학교 교수)
15:50~16:00	휴식	
16:00~17:20	좌 장 대 담	지역인재를 어떻게 확보하고 양성하고 활용할 것인가? 류장수 원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서용철 원장(부산산업과학혁신원) 이순정 과장(부산광역시 지산학협력과) 임완철 부분부장(울산·경남지역혁신플랫폼, 경상국립대학교 교수) 김영일 교수(신라대학교) 남기곤 본부장(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본부, 한밭대학교 교수) 박주완 상임부회장(부산경영자총협회) 김종한 선임위원(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성대학교 교수)
17:20	폐회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권역별 심포지엄

『지역인재로 새로운 미래를』
부울경권 | 지역기반 미래인재 전략



CONTENTS

기조강연

지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육성 방안 1

김형균 원장(부산테크노파크)

발표 1

지역대학 졸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17 : 동남권을 중심으로

안우진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전략팀)

발표 2

지역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31

정은진 센터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

발표 3

부울경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53

김종한 선임위원(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성대학교 교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권역별 심포지엄

『지역인재로 새로운 미래를』

부울경권 | 지역기반 미래인재 전략

기조강연

지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육성 방안

김형균 원장(부산테크노파크)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권역별(부울경권) 심포지엄 기조강연

지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육성 방안

2022. 7. 14.

부산테크노파크 원장 김 형 군



강서구 중견기업
I 회장님

정책 지금보다 더 급한 것이
인재를 구하는 것입니다.

어렵게 사람을 구해서 숙련시켰는데
알 만하면 수도권으로 옮겨가요.



사상구 중소기업
R 대표님



가장군 중견기업
K 대표님

지역대학에서 기업현장에 맞는 교육을
시켜줬으면 좋겠어요.



지산학 협력 기반의 인재육성 방안

INDEX

1. 부산지역 산학협력 현황
2. 부산의 새로운 지산학 협력 시스템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과 성과
4. 지산학 협력 기반 인재양성 방안
5. 맺음말

01

부산지역 산학협력 현황





1. 부산 지역 산학협력 현황

부산테크노파크

1 지역대학 인력양성 현황

» 부산 소재 대학 졸업자 현황

최근 5년간('15.~'19.) 부산지역 대학(대학원 포함)
졸업자 수는 꾸준히 감소(9%)

57,119명('15년) → 52,301명('19년)

〈 부산지역 졸업자 수 추이 〉



» 부산 소재 대학 졸업생 취업현황

최근 5년간('14.~'18.)
부산지역 취업자 수는 감소세에 있으며,

부산지역 대학생이 타지역에 취업하는 비율이 42.5%로,
역외 유출이 심각한 수준

〈 부산소재 대학 졸업생 취업지역 현황 〉



1. 부산 지역 산학협력 현황

부산테크노파크

2 지역 법인 및 주요 R&D기업 진출입 현황

» 지역 법인 진출입 현황('16.~'20.)

- 최근 5년간('16~'20년) 법인순유출(최근 5년 연평균 172개) 지속
- '20년에 부산지역 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지역으로는 경남, 서울, 경기도
- 서울 및 경기 지역으로 이전하는 주요 원인에 전문인력 확보에 포함

〈 부산지역 법인 진출입 현황 〉

(단위 : 개)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연평균
전입	3,098	3,065	3,026	3,101	3,410	3,140
전출	3,207	3,158	3,239	3,377	3,581	3,312
증감	-109	-92	-213	-276	-171	-172

* 부산상공회의소('21년)

» 지역 주요 R&D기업 진출 현황

- 최근 오토닉스 부설 기업연구소는 서울로 이전,
현대글로벌서비스는 연구개발(R&D) 기능 대부분을 판교로 이전할 예정

〈 부산지역 전출입 기업 주요 이동 시도 〉

전출 (부산 → 타시도)				전입 (타시도 → 부산)			
구분	지역	기업수	비중	구분	지역	기업수	비중
1	경남	405	43.7	1	경남	305	40.7
2	경기	116	12.5	2	서울	125	16.7
3	서울	114	12.3	3	경기	91	12.1

* 부산상공회의소('21년)



1. 부산 지역 산학협력 현황



진단 1

부산의 인재를 기업과 대학이 함께 키우고,
부산을 떠나지 않고 취업하여 정착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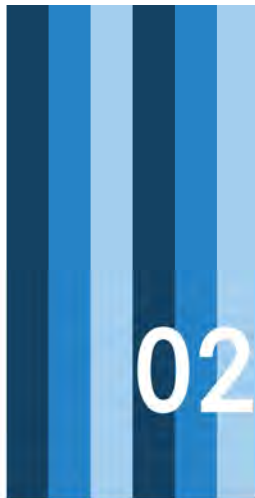
지산학 시스템 구축 필요

진단 2

기업현장의 신기술 · 인재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대학간 · 학과간 장벽을 허무는

대학혁신 기반의 인재양성 필요

7



부산의 새로운 지산학 협력 시스템





2. 부산의 새로운 지산학 협력 시스템



✓ 부산시 지산학 협력의 방향

- 지역 대학과 기업을 연결하여 산학협력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매개



최근, **지자체의 중개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9



2. 부산의 새로운 지산학 협력 시스템



✓ 부산시 지산학 협력의 방향

- 지산학협력 구현 방안



» 산학협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부산연구원 설문조사 '21. 11월)



10



2. 부산의 새로운 지산학 협력 시스템



✓ 기업과 대학에 힘이되는 부산형 지산학 협력 전략

- 부산지산학협력센터 설립

지산학 현장 수요발굴 및
협력, 소통 전담

지산학 네트워크 활성화 및
시너지 유발

지역혁신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정책 수립 및 사업지원

지역산업 수요 기반
대학혁신 지역인재 육성



부산지산학협력센터 설립

11

0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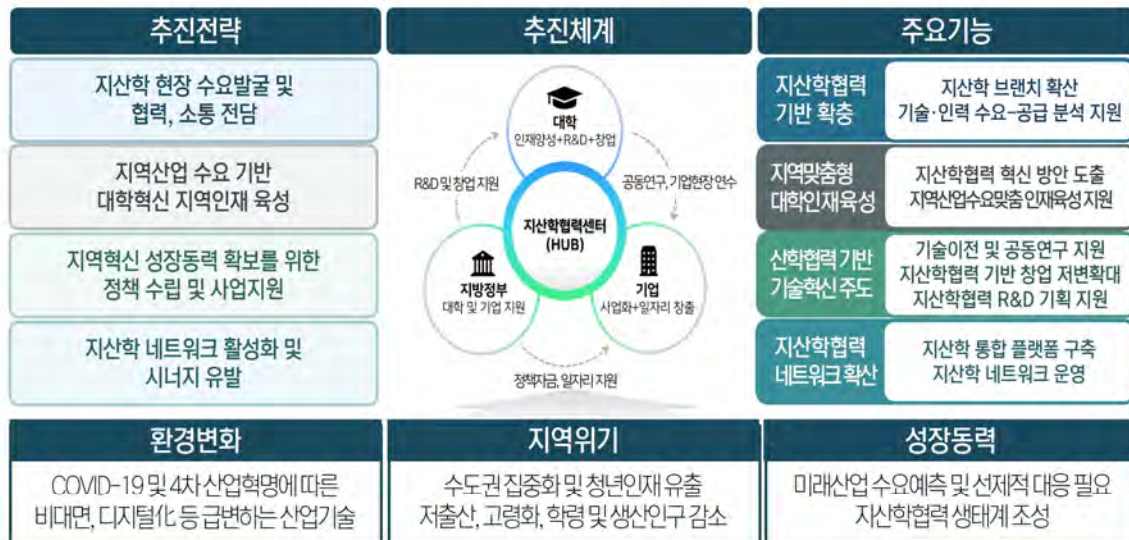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설립배경 및 비전

지역 혁신성장 선도를 위한 산업 · 대학 · 지자체 협업 거버넌스 구축



13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1. 지산학협력 기반 확충

① 지산학협력 Branch

» 대학과 기업의 기술 · 인재 협력을 통한 **시민참여형 지산학 협력 거점**으로서, 산학협력 중점 과제도출과 기술혁신을 주도하고, 시민사회 공감형 지산학 협력 체계 구축

» 지산학 협력 브랜치 **26개소 지정** ('21년 15개소, 목표 50개소)

부산 지산학협력 Branch 지정 현황 (2021년 15개소)



올해 첫 지산학협력 브랜치, 동의대 ICT 연구센터에 개소



부산테크노파크, **지산학협력 센터** 개소
(원장 김희균)는 최근 '기업연계 R&D 기반 기술협력'의 역할을 중점 수행할 부산지산학협력 브랜치 3호 센터를 (주)파나시아(대표 이수태)에 개소했다.

14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부산테크노파크

1. 지산학협력 기반 확충

① 지산학협력 Branch

» 지산학 브랜치 확산을 통한 생태계 구축



15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부산테크노파크

1. 지산학협력 기반 확충

② 산학협력 정책 통계 인프라 구축

» 기술DB

지역기업 애로기술 해결을 위한 수요기술과 지역대학이 보유한 유망기술 발굴 조사 결과 기반 기술매칭 및 기술분석 진행

성 과 지역 대학 보유기술 **6,210건** 조사분석
21개 대학 인력양성 현황 조사 완료

» 인력DB

지역기업 수요 인재 발굴 및 지역대학의 인재육성 제도, 인재POOL 조사, 현장실습 수요조사

성 과 지역 기업 **213개사** 기술·인재 수요발굴 및
104개사 매칭 완료



산학협력 정책 통계인프라 구축 용역성과보고회

16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2. 산학협력 기반 기술혁신 주도

» 부산지역 내 중소기업의 부족한 연구역량을 대학의 보유역량으로 보완하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기업에게 코디네이터 매칭을 통해 기술혁신을 지원

기업수요 기반 R&D지원

기업수요 기반 산학협업 R&D 역량 향상 지원을 통해 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역산업 발전 도모

성과 (문제해결형) 8건 접수, 4개사 선정
(혁신형) 37건 접수 및 7개사 선정



글로벌 수준 중위기술 지원

지산학협력 생태계 조성을 위한 글로벌 중위기술 선도기업 집적화도시 부산 실현

성과 (1차) 17건 접수, 8개사 선정
(2차) 23건 접수, 7개사 선정



17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3. 지역맞춤형 대학인재육성

» 양질의 실습기관 발굴로 현장중심 직무교육을 통한 산업현장 경험 기회 제공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산업 침체에 대응하여 지역 대학과 기업의 상생발전으로서 공유대학 추진 전략 수립

산학연계 현장실습 브릿지사업

기업 수요 기반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연계 지원을 통한 대학생 실무경험 함양 및 지역 내 취업 증진 도모

성과

(**22.1학기**) 62개사(대학생 112명) 지원
- 현장점검: 실습기업 20개사 점검(실습생 및 멘토 77명)
- 기업탐방: 2개사 기업탐방을 통한 인식개선
(**22.2학기**) 현장실습생 200명 추가 지원을 위한 공고 게시



지산학 현안 수요공동대응 지원

LINC3.0

산업 수요기반 신기술·신산업 인재양성과 공유·협업 체계를 강화하여 미래사회 선도 및 산학연협력 혁신 생태계 구축

성과

- **기술혁신형(2개교)**: 부산대, 부경대
- **수요맞춤성장형(11개교)**: 경성대, 동명대, 동서대, 동아대, 동의대, 한국해양대, 경남정보대, 동의과학대, 동주대, 부산과학기술대, 부산여대
- **협력기반구축형(1개교)**: 신라대

창업중심대학

창업 지원역량이 우수한 지역대학을 선정하여 지역 청년창업 생태계 핵심 거점으로 지정·육성 추진 * **부산대**

18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부산테크노파크

4. 지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산

① 지산학 통합 e-플랫폼 구축

» 지산학 통합 정보제공

지산학 관련 기술, 연구자, 인재 등 지원정보를 수요자 중심으로 제공

목표 R&D, 창업·자금지원, 청년복지 등 통합 플랫폼 구축

- 기업-대학 R&D통합 DB구축으로 **대학의 기술 사업화 지원**
- **기업 자금 지원정보, 창업 정보** 등 통합 제공
- 청년 **구인구직, 청년 주거·문화·생활안정 지원 정보** 등 제공

» 현장실습 지원

대학생 현장실습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한 실습 친화적 지역 기업 발굴 및 현장실습 확산



'22학기 현장실습 지원사업신청 화면 (<http://지산학부산.kr>)

19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부산테크노파크

4. 지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산

② 지산학 네트워크 운영

» 산학협력 도시 구현 및 지산학협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코디네이터

산학협력 도시 구현 및 지산학협력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위한 네트워크 운영

성과

TP 인적자원 활용 **28명 인증서 수여**
지산학 One Team 구성 완료



부산, 지산학 협력 강화...7개 기관 '원팀' 구성

기술매칭데이

지산학협력 수요 발굴 및 기업애로해결을 위한 1:1 상담회 개최

성과

17개사 1:1 매칭상담 총 **2회** 진행
유망기술/수요기술발굴, 기술이전 중개
*대학내 기술이전 전담조직(TLO)연계



컨퍼런스

지산학협력 인식제고 성과확산을 위한 컨퍼런스 개최

성과

지산학 심포지엄 개최('22.3.31.)
교육분권 포럼 개최('22.5.6.)



2022 교육분권포럼

20



3. 부산 지산학협력센터 현황 및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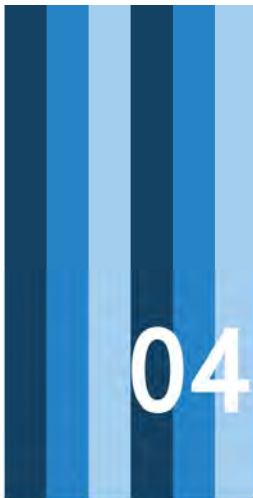
4. 지산학협력 네트워크 확산

③ 지산학 번들패키지 지원 강화

» 지산학 One-Team 구성을 통한 번들패키지 지원 강화



21



지산학 협력 기반 인재양성 방안



4. 지산학 협력 기반 인재양성 방안

비전
공유·개발·협력으로 『지산학 인재도시』 실현
- 산학혁신도시 부산 -

목표

Triple-Helix 산학협력 인재육성 체계 구축

추진방안

- (방안 1) 초연결적 지역산업 육성 추진 **공유대학 체계 구축**
- (방안 2) 전략산업·미래신산업 **전문인재 집중육성**
- (방안 3) 실무맞춤형 인재육성을 위한 **현장연수 지원 확대**
- (방안 4) 유출인재 회귀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적극적 인재 유입**

23

4. 지산학 협력 기반 인재양성 방안

방안 1 공유대학 체계 구축

대학 간 경쟁체제에서 인적·물적 인프라의 공유·협업 체계 구축으로의 전환 및 부산형 혁신 모델 발굴

추진과제

- 대학 간 공유·협업 네트워크 구축
- 인적·물적 인프라 교류 기반 구축
- 지역 대학간 공동 교육 콘텐츠 개발·공유 플랫폼 운영
- 대학특성화 전략산업 선도형 공유 교육 커리큘럼 개발
ex) 파워반도체, 수소산업 공유대학 논의 중

방안 2 전문인재 집중육성

대학간 공유·협업 기반 중심의 전략 및 미래신산업 수요인재 집중육성 시스템 구축

추진과제

- 미래신산업분야 연계 지역 핵심 전문인재육성 산업군 도출
- 지산학 연계 교육-연구-고용 선순환 생태계 조성 전략 구축
- 다양한 산업수요 기반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공동운영

24

4. 지산학 협력 기반 인재양성 방안

방안 3
현장연수 지원 확대

지역산업 수요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생 현장연수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청년·산업 지역 정착화 기반 조성

추진과제

제도적 현장연수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강화

대학생 표준현장실습학기제 연계 고용강화 및 지역 기업에 대한 청년 인식 개선 활동 추진

부산형 대학생 현장연수 지원제도 성공 모델 정착화 및 브랜딩화 추진

방안 4
적극적 인재 유입

지역 출향 인재와 역외 인재가 적극 유입되는 지산학 인재 도시로의 변화 촉진

추진과제

유출인재 회귀 프로그램을 위한 정주여건 지원

대기업 부산 유치를 통한 출향·역외 인재 유입 환경 조성

출향 인재 네트워크 및 인재 Pool 조사 확보

05

맺음말



5. 맺음말

한 기업을 키우는데
온 도시가 필요하다.

- 아프리카 속담 인용

27



5. 맺음말

부산테크노파크는

부산시와 부산의 기업, 부산의 대학과 함께

유능한 청년인재가 넘쳐나는

“다시 태어나도 살고 싶은 도시 부산”을

만들어내겠습니다.

28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권역별 심포지엄

『지역인재로 새로운 미래를』

부울경권 | 지역기반 미래인재 전략

발표 1

지역대학 졸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동남권을 중심으로

안우진 부연구위원(한국직업능력연구원 미래전략팀)



지역대학 졸업자의 노동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 동남권을 중심으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안우진

- 1 서론
- 2 인구이동
- 3 분석자료 및 결과
- 4 결론

01

서론 | 연구배경

- 지역 청년인구의 유출은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물론, 저출산·고령화를 심화 시키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
- 국가차원에서의 인구감소가 초저출산(자연 감소)과 관련되어 있다면, 지역차원에서의 인구감소는 청년층의 지역이동(사회적 감소)과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 우리나라는 60~70년대 빠른 성장을 위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성장 거점 전략'을 펼치기 시작하여,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의 집적을 보임에 따라서 고학력, 고기술 인재들이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음

01

서론 | 연구배경

-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생애기대소득을 극대화함은 물론,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의 매칭을 원활하게 하여 청년층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하게 함
-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따른 지역소멸 위험의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의 청년인구 유출 현상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우려 뿐만 아니라, 지역의 지속가능성 자체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고 있음

01**서론 | 연구목적**

청년의 지역이동에 관한 연구는 크게 1) 지역이동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
2) 지역이동으로 얻는 편익에 관한 연구의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남

본 연구에서는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이동을 통해서 노동시장성고를 향상시키는데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음

- 지역이동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로서, 지역이동으로 발생하는 한계편익과 한계비용을 비교하여
개인의 기대소득을 극대화하는 지역으로 이동을 결정
- 특히, 이러한 지역이동 경향성이 부울경 청년층에서 발견되는지 실증하고자 함

청년층의 지역이동과 노동시장 성과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인재 유출의 악순환을 가져
오는 실태와 원인을 살펴보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

02**인구이동 | 수도권 집중화**

1966년

1980년

2000년

2020년



➤ 수도권 인구 비중: **23.6%**(6,895,605명)

➤ 동남권 인구 비중: **15.8%**(4,601,165명)

• 부산: 4.9% / 경남: 10.9%

➤ 수도권 인구 비중: **35.5%**(13,298,241명)

➤ 동남권 인구 비중: **17.3%**(6,481,898명)

• 부산: 8.4% / 경남: 8.9%

➤ 수도권 인구 비중: **46.3%**(21,354,490명)

➤ 동남권 인구 비중: **16.6%**(7,655,814명)

• 부산: 7.9% / 울산: 2.2% / 경남: 6.5%

➤ 수도권 인구 비중: **50.2%**(26,043,325명)

➤ 동남권 인구 비중: **15.1%**(7,817,495명)

• 부산: 6.5% / 경남: 6.4% / 울산: 2.2%

주: 울산은 1997년 이전에 경남 울산시였다가 1997년 이후 울산광역시로 승격됨
자료: 통계청, 인구총조사(각 년도)
출처: KBS·KAIST 문화기술대학원 박주용 교수 연구실

02

인구이동 | 청년층의 수도권 집중화

- 최근 10년간 청년층의 지역이동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과 세종을 제외한 지역에서 청년인구의 순유출이 점차 증가
- 부울경에서는 2021년 한 해 동안 약 3만 1천명에 달하는 청년인구가 순유출

〈시도별 청년인구 순이동 규모〉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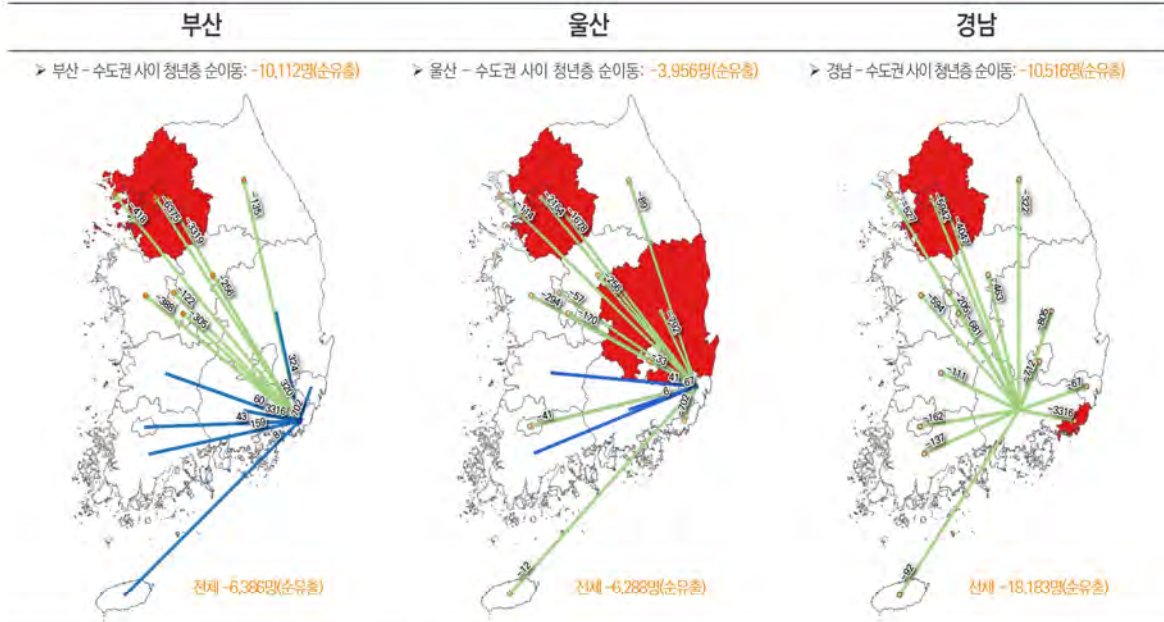
인구이동 | 부울경 인구이동(2021)

부산	울산	경남
➢ 순이동(시도단위 기준): -18,903명(순유출) ➢ 3대 순유출 시도: 서울(-6,931명), 경기(-5,336명), 경남(-3,906명) • 단, 울산(1,141명), 대구(338명)에서 순유입	➢ 순이동(시도단위 기준): -13,674명(순유출) ➢ 3대 순유출 시도: 경북(-3,261명), 경기(-3,001명), 서울(-2,621명) • 울산의 경우 기타시도로 순유출만 발생	➢ 순이동(시도단위 기준): -13,703명(순유출) ➢ 3대 순유출 시도: 경기(-5,746명), 서울(-5,716명), 경북(-1,352명) • 경남의 경우 부산(3,906명), 울산(1,225명)으로 부터 순유입

주1: 초록색선은 순유출을 파란색선은 순유입을 의미하고, 지도상 붉은색은 3대 순유출 시도를 파란색은 순유입 시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02

인구이동 | 부울경 청년층 인구이동(2021)



주1: 초록색선은 순유출을 파란색선은 순유입을 의미하고, 지도상 붉은색은 3대 순유출 시도를 의미함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02

인구이동 | 권역별 인구이동(2021)

〈권역별 인구 순이동 규모(2021년 기준)〉

(단위: 명, %)

구분	순이동 합계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세 이상
수도권	55,697	-1,661	7,712	70,211	4,390	-4,687	-9,824	-10,444
충청권	17,138	776	-51	-2,735	3,331	3,583	5,092	7,142
대경권	-20,982	-324	-1,551	-16,826	-3,111	-329	816	343
동남권	-46,280	-1,534	-3,798	-25,439	-6,428	-2,907	-2,975	-3,199
호남권	-16,171	528	-2,209	-19,166	-1,174	1,097	2,691	2,062
강원권	6,681	923	7	-4,574	1,281	1,829	3,512	3,703
제주권	3,917	1,292	-110	-1,471	1,711	1,414	688	393

▶ 권역별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

- 순유입: 수도권, 충청권, 강원권 順으로 순유입 많음
- 순유출: 동남권, 대경권, 호남권 順으로 순유출 많음
- 동남권의 경우 모든 연령구간에서 순유출 발생

구분	순이동 합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세 이상
부산	-18,903	164	-349	-4,788	-2,661	-2,016	-3,349	-5,904
울산	-13,674	-1,212	-1,448	-4,838	-1,953	-1,371	-1,621	-1,231
경남	-13,703	-486	-2,001	-15,813	-1,814	480	1,995	3,936
합계	-46,280	-1,534	-3,798	-25,439	-6,428	-2,907	-2,975	-3,199
	비중	3.3%	8.2%	55.0%	13.9%	6.3%	6.4%	6.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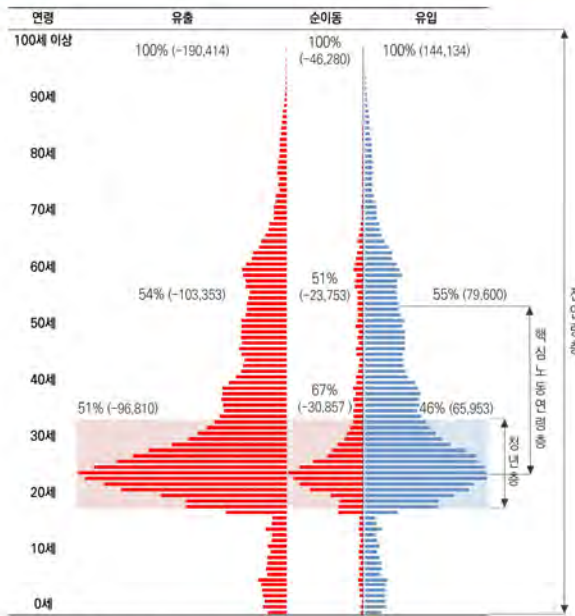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2021)

▶ 동남권 연령대별 인구 순이동

- 부산의 경우 10대 이상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출
- 울산의 경우 모든 연령대에서 순유출
- 경남의 경우 40세 미만 연령대에서 순유출

02

인구이동 | 부울경 연령별 인구 유출입 구조(2021)



➤ 대부분의 연령구간에서 순유출

- 순이동(-46,280): 유입(144,134)-유출(190,414)
- 청년층(19~34세: 청년기본법 기준), 핵심노동연령층(25~54세: ILO 기준)에서 순유출

➤ 청년층(19~34세) 유출-유입인구 격차

- 유출인구 중 청년층 비율: 51%(-96,810)
- 유입인구 중 청년층 비율: 46%(+65,953)
- 전체 순이동 대비 청년층 순이동 비율: 67%(-30,8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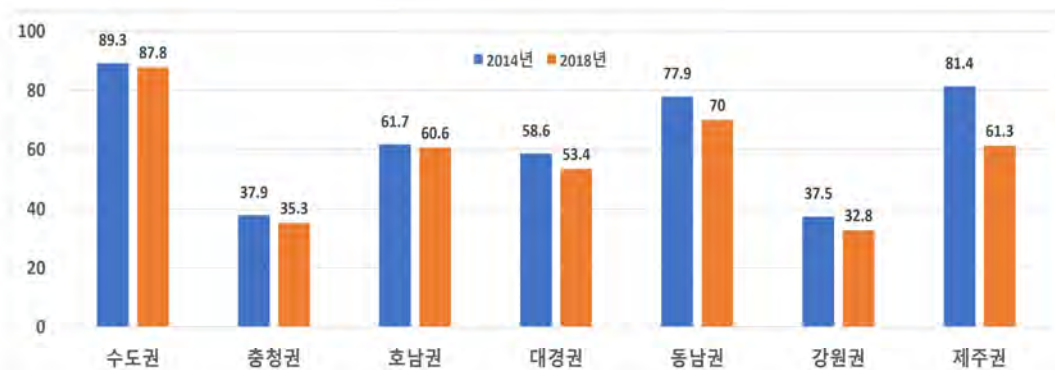
➤ 핵심노동연령층(25~54세) 유출-유입인구 격차

- 유출인구 중 핵심노동연령층 비율: 54%(-103,353)
- 유입인구 중 핵심노동연령층 비율: 55%(+79,600)
- 전체 순이동 대비 핵심노동연령층 순이동 비율: 51%(-23,753)

02

대졸자 지역이동 | (취업을 위한 이동 현황) 지역내 잔존률

- 2018년 기준 지역내 잔존률은 수도권(87.8%), 동남권(70.0%), 제주권(61.3%) 순으로 집계됨
- 동남권은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내 잔존률을 보이나, 지난 5년간의 하락폭이 8%p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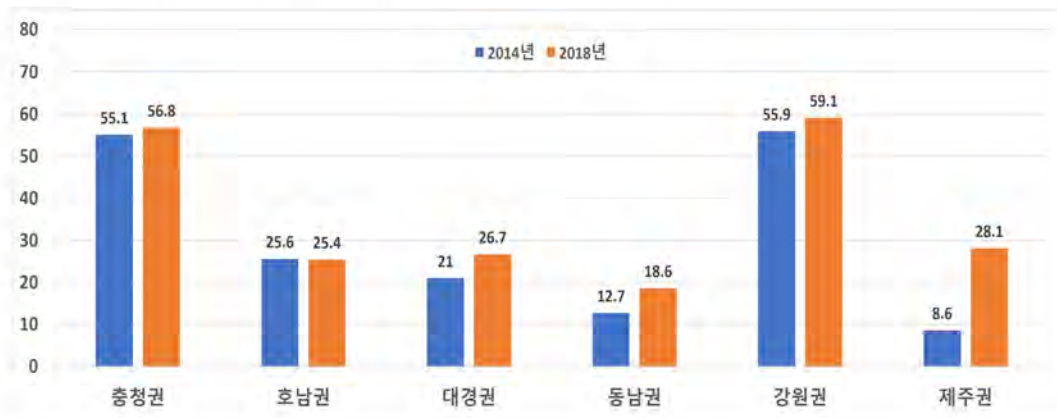


자료: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4, 2018)

02

대졸자 지역이동 | (취업을 위한 이동 현황) 수도권 유출률

- 충청권(56.9%)과 강원권(59.1%)에서 수도권 유출률이 높게 나타남
- 동남권의 수도권 유출률은 2014년 대비 2018년 약 6%p 증가



자료: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4, 2018)

02

대졸자 지역이동 | (취업을 위한 이동) 순유출률과 유출률 비교

- 부울경 대학졸업자의 순유출률과 유출률 모두에서 2015년 대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부산의 경우 대학졸업자의 순유출이 발생하고 있는 반면에, 울산/경남은 순유입 되고 있음



자료: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2015, 2018)

03

분석자료 | 데이터

➤ 대졸자직업이동경로조사(GOMS: Graduates Occupational Mobility Survey)

- GOMS 자료는 당해 년도 2월과 전년도 8월 졸업자를 모집단으로 포함하고 있음
- 본 연구에서는 GOMS 2015~2018년까지 최근 4년간의 자료와 대학소재지(시군구) 정보를 연계하여 분석
- 분석대상은 표본의 동질성을 고려하여 전문대학을 제외한 35세 미만 일반대학과 교육대학 졸업생으로 한정
- 임금, 개인특성(연령, 성별), 학업특성(전공, 학점, 휴학경험, 졸업유예경험), 직장특성(종사상 지위), 가구특성, 지역 등의 변수를 사용함

03

분석자료 | 노동시장성과 변수

➤ 대학졸업자의 지역이동이 노동시장 성과를 향상시키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4가지 성과변수를 설정

구분	종속변수	변수 설정	노동시장성과
모형1	상용직 여부	상용직=1, 임시·일용직=0	정성적(고용안정성)
모형2	정규직 여부	정규직=1, 비정규직=0	
모형3	실제임금의 평균임금 이상 여부	실제임금 ≥ 평균임금=1, 실제임금 < 평균임금=0	정량적(임금)
모형4	유보임금 초과율	(실제임금-유보임금)/유보임금	

03

분석자료 | 지역이동 광역성 변수

➤ 주요 설명변수 1 : 부울경에서 대학을 졸업한 후 동일 권역에 취업하는지 여부

- 대학졸업자와 현 직장이 동일권역인지 여부에 대한 이진변수를 생성(부울경내 취업=0, 부울경외 취업=1)

➤ 주요 설명변수 2 : 대학졸업자와 현 직장까지의 거리 변수

① 대학-직장 권역이 같은 경우 평균 이동거리는 약 21km이고, 75분위에 위치한 거리는 약 30km임

② 대학-직장 거리변수의 75분위에 위치한 거리는 15년(75km), 16년(80km), 17년(100km), 18년(128km)임

구분	① 대학-직장 권역이 동일한 대졸자 이동거리 분포					② 대졸자 전체의 이동거리 분포				
부울경 대졸자 대상	구분	Percentile			평균	구분	Percentile			평균
		50분위	75분위	90분위			25분위	50분위	75분위	
	2015	11.9	30.9	53.9	21.2	2015	6.6	16.7	74.8	75.4
	2016	11.8	30.9	54.5	21.1	2016	6.8	17.4	80.8	75.1
	2017	11.9	29.4	53.7	21.1	2017	7.1	18.4	102.2	85.0
	2018	11.9	29.4	53.7	21.1	2018	8.1	20.1	128.5	89.3

03

분석결과 | 지역이동 광역성과 노동시장 성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한계효과
모형1 [상용직 여부]	0.009 (0.027)	0.030 (0.028)	0.035 (0.025)	0.053** (0.024)	5%
모형2 [정규직 여부]	-0.009 (0.032)	0.022 (0.032)	0.066** (0.029)	0.094*** (0.028)	7~9%
모형3 [실제임금의 평균임금 이상 여부]	0.094** (0.040)	0.145*** (0.035)	0.156*** (0.030)	0.133*** (0.031)	9~16%
모형4 [유보임금 초과율] (실제임금-유보임금)/유보임금	0.058** (0.027)	0.006 (0.022)	0.059*** (0.021)	0.068*** (0.020)	6~7%p

주: 분석에서 개인특성(연령, 성별), 학업특성(전공, 학점, 휴학경험, 졸업유예경험), 가구특성, 지역 등을 통제함

➤ 부울경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권역외로 취업한 집단의 경우
권역내에서 취업한 집단보다 노동시장성고가 더 높게 나타남

- 기준집단 대비 권역외로 취업한 집단이 상용직 • 정규직으로 취업
확률이 각각 5%, 7~9% 높게 분석됨

- 권역외로 취업한 집단이 권역내에서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실제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확률이 9~16% 높았으며, 유보임금 초과율도
6~7%p 높게 분석됨

03

분석결과 | 지역이동 광역성과 노동시장성과

구분		2015	2016	2017	2018	한계효과
모형1 [상용직 여부]	30km~75분위	0.039 (0.030)	0.099*** (0.027)	0.033 (0.029)	0.068** (0.028)	5~10%
	75분위 이상	0.021 (0.027)	0.075*** (0.027)	0.053** (0.027)	0.066** (0.027)	
모형2 [정규직 여부]	30km~75분위	0.085** (0.035)	0.125*** (0.032)	0.065* (0.034)	0.133*** (0.032)	7~13%
	75분위 이상	0.029 (0.032)	0.050 (0.033)	0.077** (0.031)	0.130*** (0.032)	
모형3 [실제임금의 평균임금 이상 여부]	30km~75분위	0.144*** (0.045)	0.195*** (0.042)	0.219*** (0.038)	0.163*** (0.035)	13~22%
	75분위 이상	0.127*** (0.042)	0.181*** (0.037)	0.218*** (0.033)	0.174*** (0.035)	
모형4 [유보임금 초과율] (실제임금-유보임금) /유보임금	30km~75분위	0.012 (0.030)	0.066** (0.028)	0.076*** (0.025)	0.058** (0.025)	6~10%p
	75분위 이상	0.066** (0.028)	0.035 (0.022)	0.076*** (0.023)	0.098*** (0.022)	

주1: 주: 분석에서 개인특성(연령, 성별), 학업특성(전공, 학점, 휴학경험, 졸업유예경험), 가구특성, 지역 등을 통제함
 주2: 2015년 75분위(75km), 2016년 75분위(80km), 2017년 75분위(100km), 2018년 75분위(128km)

➤ 부울경내 이동으로 가정한 30km 보다 더 많이 이동한 집단에서 고용안정성과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을 확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남

- 기준집단 대비 권역외로 취업한 집단이 상용직 · 정규직으로 취업 확률이 각각 5~10%, 7~13% 높게 분석됨
- 권역외로 취업한 집단이 권역내에서 취업한 집단에 비해 실제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높을 확률이 13~22% 높았으며, 유보임금 초과율도 6~10%p 높게 분석됨

03

분석결과 | 지역이동 광역성과 노동시장성과

구분		전국 대학졸업자	비수도권 대학졸업자	부울경 대학졸업자
모형1 [상용직 여부]	30km~75분위	3~7%	5~9%	7~10%
	75분위 이상	5~8%	5~11%	5~8%
모형2 [정규직 여부]	30km~75분위	8~10%	11~14%	7~13%
	75분위 이상	8~13%	9~17%	8~13%
모형3 [실제임금의 평균임금 이상 여부]	30km~75분위	7~13%	14~17%	15~22%
	75분위 이상	12~15%	15~21%	13~22%
모형4 [유보임금 초과율] (실제임금-유보임금) /유보임금	30km~75분위	5~7%p	5~8%p	6~8%p
	75분위 이상	5~9%p	5~10%p	7~10%

주1: 주: 분석에서 개인특성(연령, 성별), 학업특성(전공, 학점, 휴학경험, 졸업유예경험), 가구특성, 지역 등을 통제함
 주2: 전국/비수도권 대졸자를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 지역이동 더미는 30km미만, 30~90km, 90km 이상으로 분류하였음

➤ 전국/비수도권 대학졸업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도 절대적 지역이동 거리가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성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분석됨

- 우리나라 전체 대학졸업자의 지역이동 효과보다 비수도권 또는 부울경에서 졸업한 대졸자의 지역이동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남

04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역 노동시장 사이의 지역이동, 특히 부울경 대학졸업자의 지역이동을 중심으로, 지역이동의 광역성이 개인수준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찾을 확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함

일반적으로 지역이동은 개인수준에서 기대소득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인구 집단 안에서도 기대소득이 더 높은 고학력 청년층의 지역이동이 활발함

본 연구결과에서도 노동기회의 공간적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부울경에서 대학을 졸업한 청년들이 지역이동을 통해서 고용안정성을 향상시키고 상대적으로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04 결론

종합하면, 청년층의 지역이동은 경제적인 이유와 고용안정성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지역 노동시장에서 고용안정성과 높은 임금을 제공할 수 있다면 지역 인재 유출로 인한 지역 소멸의 고민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임

따라서 현재의 광역시도 단위보다 넓은 초광역단위에서 교육·산업 공유생태계를 구축하여 집적경제효과를 극대화해서 고임금과,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면 고급인력의 지역이주 뿐만 아니라 지역인재의 정착 가능성 또한 높아질 수 있을 것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권역별 심포지엄

『지역인재로 새로운 미래를』

부울경권 | 지역기반 미래인재 전략

발표 2

지역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정은진 센터장(한국직업능력연구원 지역·산업HRD연구센터)



지역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강화 방안

발표자: 정은진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본 발표는 ‘졸업생 정보 활용을 통한 청년층 맞춤형 고용서비스 방안(정은진, 고혜원, 박상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기본연구(2021-21)’의 내용을 토대로 요약 및 재구조화 되었습니다.

목차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선행연구: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서비스의 현안 및 문제점 도출
- 사례조사: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의 해외 사례
- 인터뷰: FGI(Focus Group Interview)
- 정책 제언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021년 7월 21일 SBS 뉴스 '취업 준비 준비생' 을 아시나요? 청년 취업
실태(<https://www.youtube.com/watch?v=vD3WUeOkrGM>)

취업준비 준비생의 현실

- 3명중 1명, 졸업 후에도 여전히 취업 준비
- ‘미취업 기간 3년 이상’ 비중 18% 작년보다 증가
- ‘미취업 기간 그냥 시간 보냈다’ 25% 차지
- 4년제 대학 졸업까지 평균 약 5년 2개월 걸려

출처: 2021년 7월 21일 SBS 뉴스 ‘취업 준비 준비생’ 을 아시나요? 청년 취업 실태(<https://www.youtube.com/watch?v=vD3WUeOkrGM>)

취업준비 준비생의 현실



- 졸업 후 취업 까지 평균 10.1개월 정도 걸려

지역별 취업률 현황

소재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도 대비 2019년도 차이
서울	55.9%	57.1%	55.8%	57.3%	56.3%	.40%p
부산	59.9%	59.0%	57.4%	58.1%	56.2%	-3.70%p
대구	59.8%	59.9%	59.0%	59.4%	58.0%	-1.80%p
인천	63.7%	64.3%	63.0%	64.5%	62.3%	-1.40%p
광주	58.7%	60.0%	57.7%	59.1%	57.5%	-1.20%p
대전	57.2%	58.5%	56.9%	58.1%	57.4%	0.20%p
울산	64.9%	62.1%	58.0%	60.1%	60.0%	-4.90%p
세종	57.8%	58.0%	57.3%	57.7%	57.4%	-0.40%p

출처: 정은진 외(2021, 158) 해당 자료는 KEDI와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data를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다운 받아 재분석한 결과임.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 대학원 제외)의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임.

지역별 취업률 현황

소재지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15년도 대비 2019년도 차이
경기	61.0%	62.3%	61.6%	62.0%	60.7%	-0.30%p
강원	58.9%	59.8%	58.5%	60.3%	58.4%	-0.50%p
충북	60.2%	61.0%	59.2%	61.5%	61.2%	1.00%p
충남	62.3%	63.4%	62.6%	62.0%	61.4%	-0.90%p
전북	57.6%	56.5%	55.3%	57.9%	57.7%	0.10%p
전남	61.9%	61.6%	59.8%	62.3%	61.9%	0%p
경북	59.6%	60.2%	57.9%	58.9%	57.1%	-2.50%p
경남	60.2%	60.0%	58.3%	61.3%	59.4%	-0.80%p
제주	58.0%	59.5%	59.6%	58.1%	58.0%	0%p

출처: 정은진 외(2021, 158) 해당 자료는 KEDI와 교육부의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data를 (<https://kess.kedi.re.kr/index>)에서
다운 받아 재분석한 결과임. 전문대학, 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각종학교, 기능대학 (일반 대학원 제외)의 데이터로 분석한 결과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지역별·성별 취업 현황

(단위: 명, %)

구분		졸업자	취업대상자	취업자	취업률
2020	총계	553,521	480,149	312,430	65.1
수도권	합계	231,580	195,908	130,771	66.8
	남	108,874	91,447	63,711	69.7
	여	122,706	104,461	67,060	64.2
비수도권	합계	321,941	284,241	181,659	63.9
	남	165,520	143,460	94,007	65.5
	여	156,421	140,781	87,652	62.3
2019	총계	550,354	481,599	323,038	67.1
수도권	합계	227,265	194,841	133,764	68.7
	남	106,961	90,781	65,152	71.8
	여	120,304	104,060	68,612	65.9
비수도권	합계	323,089	286,758	189,274	66.0
	남	164,960	143,935	96,830	67.3
	여	158,129	142,823	92,444	64.7

주 1) 조사기준일: 각 년도 12월 31일

2) 수도권 : 서울, 인천, 경기

출처: 교육부 (2021) 2020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분석 자료 p.10

청년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평가/목소리

- 관계부처합동 (2021) 청년의 목소리(2021.7.23 - 8.4)
 - 만 19-34세 청년 1,000명
 - 온라인 설문조사 결과
 - ✓몰라서 못 받는 일이 많음 : 적극적인 홍보 및 정책 안내 요청
 - ✓취업 준비 시 어려운 점 : 일자리 부족(70.2%)
정보획득의 어려움(32.8%)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이용률

-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저조한 **이용률**(19년도, 국무조정실)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8.8%**
 - 대학일자리센터: **15%**
 - 온라인 청년센터: **8.1%**
 - 창업지원기관: **5.2%**
- 청년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불만족** 사유(19년도, 일자리위원회)
 - 1순위: 지원인력과 프로그램의 **전문성 및 실효성이 낮음**(51.6%)
 - 2순위: **지원 기간 및 규모가 부족함**(39.1%)

연구 문제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는
어떻게 개편되어야 하고, 어떠한 방향으로
발전 되어야 하는가?**

연구 목적 및 방법

- 연구 목적
 -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서비스의 내용과 전달체계의 각 현안을 분석,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발전 방향을 모색
- 연구 방법
 -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안 분석
 -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의 해외 사례 조사
 - Focus Group Interview(FGI: 청년층과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담당자 대상)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및 서비스 전달체계의 현안 분석

청년층 대상 고용정책

정책/서비스 명칭	정책 내용	정책 목적 및 대상
청년채용특별장려금(2021)	장기 근속 및 자산형성 지원	청년 대상, 장기근속 및 직무능력 향상
청년내일채움공제		
일학습병행	직무능력 키우기	
산업계주도 청년 맞춤형 훈련		
중소기업탐방프로그램	일경험 기회	
구직자 취업지원서비스		
국민취업지원제도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모든 연령대 대상, 취업지원 및 직무능력 향상
국민내일배움카드		
국가기관·전략산업직종훈련	(구직자 대상) 직무능력개발	
일반고 특화 직업능력개발훈련		

청년층 대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명칭	제공방식	취업매칭 여부
온라인 청년센터	on	no
지자체 청년센터	off	no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on/off	yes
고용복지+센터	on/off	yes
워크넷	on	yes

고용정책 개요/현안

정책	개요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지원사업 (2021)청년채용특별장려금	- 중소기업이 청년을 정규직 신입사원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받는 정책	- 2017년 8월에 시작한 이후 2021년의 경우 9만 명이라는 해당 연도 정책 지원 목표가 조기에 마감되는 등 인기 - 예산의 조기 소진 & 일부 기업의 부정수급 -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
청년내일채움공제	- 청년들이 중소기업에 장기 재직할 수 있게 하기 위해 2년 또는 3년의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모으면 정부에서도 지원금 제공 - 청년의 목돈 마련에 도움	- 일부 악덕 기업들이 해당 제도를 감찰의 도구로 활용하는 사례 발생 - 재정부실의 우려
중소기업 탐방 프로그램	- 구직 청년들에게 우수한 중소기업을 알리기 위한 정책 - 우수 중소기업에 방문해 해당 기업을 견학, 현장 체험 기회 제공	- 프로그램의 참여 기간이 1박 2일이나 2박 3일 등 짧게 진행

고용정책 개요/현안

정책	개요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
국민취업지원제도	- 고용보험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취업취약계층 들에게 구직에 필요한 서비스와 생활에 드는 비용을 지원해주는 정책	- 2021년 주경을 포함하면 총 64만 명이 이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집계 - 현금성 수당에 대한 비판 - 신청이 몰리면서 예산 부족 - 참여자들의 도덕적 해이를 막을 수 있도록 취업활동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

고용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요/현안

전달체계	개요	주요 이슈 및 개선 과제
대학일자리센터	- 대학 안에서의 센터를 통해 청년들의 취업과 창업, 진로 지도 등을 지원하는 역할 - 2015년 10월에 시작(21개 대학), 2021년도에 대학일자리플러스 센터로 확대 및 개편(100개)	- 청년들의 이용률 저조 (2019년도 이용률: 15%)
고용복지플러스센터	- 고용노동부의 고용센터, 지자체의 일자리센터, 보건복지부의 복지지원팀, 여성가족부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의 여러 행정기관 조직들이 한 곳에 모여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 - 2022년 현재 전국 102개소 설치	- 내부 기관 간 협업 어려움 - 협업과 연계가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통합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려움
오프라인 청년센터	- 고용노동부가 2018년 3월 청년고용촉진방안 발표 - 지자체 청년센터 중 총 12개 운영(1.5억)	-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음 -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인기가 저조 - 인지도 부족, 홍보 문제

맞춤형 찾아가는 서비스(OUT-REACH)의 해외 사례

1. 프랑스의 미시옹 로칼(MISSION LOCALE)

2. 핀란드의 오희야모(OHJAAMO)

1) 프랑스의 미시옹 로칼

* 청년의 직업 및 사회 진입을 위한 미시옹 로칼

(Missions locales pour l'insertion professionnelle et sociale des jeunes)

- 1982년 국가의 요구에 따라서 지역적 차원에서 설립
- 프랑스 청년 인구의 실업과 니트 상태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에 대응
- 16~25세의 학교 교육을 마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수월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



출처: 서울시청년활동지원센터(2017: 23)의 그림을 토대로 연구진이 번역하여 자체 작성.

1) 프랑스의 미시옹 로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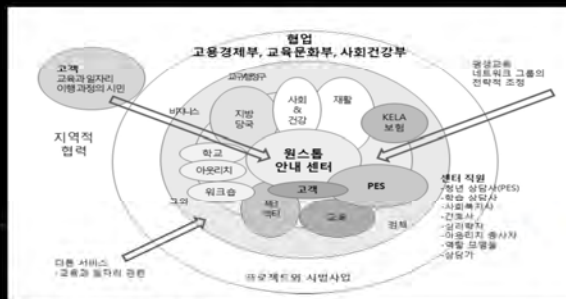
핵심 내용 및 시사점

- 청년을 소극적 정책 수혜자가 아니라 **적극적 시민**으로 인식
- 지역 청년정책과 관련된 행위자들을 연결하여 **네트워크** 구성
- **지역 상황에 맞게** 운영
- 풍부한 사회 경험을 보유한 **상담사**에 대한 적극 투자 (1년에 약 81억)
- 고용 이외 **청년의 삶 전반**을 보장

2) 핀란드의 오희야모

* 원스톱 안내센터 **오희야모(Ohjaamo)**: 30세 미만의 청년을 대상으로 고용지원, 교육, 상담, 생활관리, 일상생활에 필요한 사회적 기술 습득 등을 제공

- 2019년: **60개 이상의 지방정부에 오희야모 설립**
- 전국에 **50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
- 청년 누구나 쉽게 방문할 수 있는 **서비스 허브** 역할 강조



출처: 채창균 외(2018: 184).

2) 핀란드의 오희야모

핵심 내용 및 시사점

- 전반적인 서비스 체계가 파편화되어 여러 담당자들이 있는 사무실을 돌아다녀야 하는 것이 불편하다는 의견 수렴
- <경제고용부>, <교육부>, <사회보건부>와 협업
- 정부부처 간의 경계를 넘어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형성
 - 불필요한 서비스 중첩이 사라짐
- 정부, 지자체, NGO, 기업 등이 **한 곳에 모여 서비스** 제공
 - 다양한 공공조직과 민간조직의 인력이 하나의 공간에 모임
- 진로상담, 직업훈련, 사회보장 서비스, 주택복지 등 여러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제시

FOCUS GROUP INTERVIEW (초점집단인터뷰)

대상자: 청년(14명)
대학일자리센터 업무 담당자(7명)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업무 담당자(6명)
청년센터 업무 담당자(4명)
일시: 2021년 10월 20일~22일

FGI QUESTION

청년 대상

[문제점 및 현황]

-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정책 및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습니까?

[개선 방향]

- 청년을 위한 고용서비스 정책 및 사업의 내용 중 개선되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FGI QUESTION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담당자 대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 청년들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가 잘 전달이 되고 있나요?
만약 그러하다면 어떠한 방법을 활용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개선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청년들에게 맞춤형 서비스가 적시에 제공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부분의 개선이 시급히 해결될 필요가 있습니까?

청년 대상 FGI 결과 및 시사점

- 전문 상담사와의 **상담 기회 부족**
-> 전문 상담인력 확충 필요
- 청년 대상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이해의 어려움**
-> 쉬운 용어로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 필요
(청년들이 많이 활용하는 채널 공략)
- 청년층 대상 전달체계에 대한 **인식 부족**
-> 생생한 정보가 공유되는 공간 마련 필요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담당자 대상 FGI 결과

[대일센터]

- 대학생의 경우, 선배와의 멘토링 프로그램 확대 제안
- 강소기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 변화 필요

[고용센터]

- 현금 지급성 정책에 대한 우려
- 기업 DB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제안
- 상담 프로그램 확대 -> 상담 인력 확충
- 정보 연계의 필요성 강조

고용서비스 전달체계 담당자 대상 FGI 결과 요약

[고용센터]

- 부처간 협업 필요 (유사, 중복 정책 문제)
- 서비스의 양보다는 질 향상에 초점
-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는 홍보 정책 필요
- 청년 고용 서비스 종합 플랫폼 구축 제안

[청년센터]

- 지역 청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필요
- 센터와 일자리 연계 기능 강화 필요

정책 제언

제언 1

1. 거버넌스체계 구축 활성화

- 대학일자리센터 거버넌스 기능 점검 및 확대 개선 제언
- 지역청년고용협의회 등을 활용(예: 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와 소통 등)하여 기업 DB 접근 및 활발한 정보 공유 제언
- 위원회와 적극적인 협의 필요
- 지역청년고용협의회의 역할 기능 점검
- 실질적 기능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예: 기업 DB 정보 구축 및 공유, **강소기업에 대한 정보 공유 활성화** 등

제언 1



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66jclbbzTHE> 에서
2022년 7월 6일 검색

[부산지산학협력센터]

- 지자체와 기업, 대학의 새로운 협력 모델 (성장, 상생, 전환)
- 성장 유망 기업이 향후 필요로 하는 혁신 인재를 대학과 연계해 육성
- 기업 수요, 대학공급 실태조사
- 기업과 대학의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
- 지산학 공동연구개발과 기술사업화 지원, 우수 기술 기업 이전, 대학혁신 및 지역대학 인재 양성 등의 역할 수행
- 지산학협력 브랜치 23개소(22년 4월 기준)

부산지산학협력센터

[밀어주고]

- 지산학 R&D 총괄 대응
- 지산학 협력센터 Branch 발굴 및 운영 지원
- 대학 내 유희자원 활용 신규 정책 발굴

[올려주며]

- 산학협력 규제개선 사항 발굴 대응
- 기술닥터제와 연계한 대학닥터제 운영
- 산학협력 모범 사례 발굴

[끌어주고]

- 기술 기업지원중개, 대학기술사업화
- 지산학협력코디네이터 운영 지원
- 현장 실습지원단 운영

[키워주고]

- 지역인재의 수요 공급 현황 조사
- 대학-기업 거버넌스 구축
- 대학 내 혁신사업 기획 및 유치 지원
- 수요기반 인재양성사업 발굴 및 연계

제언 2, 3

2. 센터 별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

-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청년센터 등 여러 센터의 업무 담당자가 새로운 정책 및 서비스의 내용을 쉽게 공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 각 센터 별 정보 공유를 위한 플랫폼 구축에 투자
- 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방안 고려

3. 청년 정책의 홍보 방식 개선

- 인스타그램의 카드 뉴스 적극 활용 제안
 - 유튜브의 쇼트 기법 활용
 - 새로운 제도 및 정책은 쉽게 설명
- >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방식으로
제도의 홍보 방식에 변화





제언 4, 5

4. 청년들의 '자립심' 함양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기존 현금성 수당 지원이 주를 이루는 정책 탈피
- 청년들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자립심' 함양을 위한 내실 있는 프로그램 개발
- 기존 정책들의 실효성에 대한 정확한 진단

5. 청년층 대상 전문 상담인력 확충

- 청년들 대상 전문 상담 인력 부족
- 자격증을 소유한 자에게 한정하기 보다는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지닌, 그리고 청년에 대한 애정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상담 인력 양성에 투자 필요 (예: 프랑스 미시옹 로칼)
- 일자리 창출 효과
- 청년들의 전문 상담에 대한 국가적 지원

부산광역시청 청년의 경제, 심리적 안정을 위하여 청년 대상 상담을 제공하여 청년의 심리안정과 사업 진업을 촉진하고자 2022년 청년 마음상담 사업을 추진하는 바, 다음과 같이 1차1 심리 상담과 참여할 청년을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지원대상: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상담이 필요한 만18세~34세 청년 누구나
※ 2021 부산청년 마음상담가팀 미참여자가 우선

○ 모집인원: 300명

○ 신청기간: 2022년 5월 16일 ~ 선착순 마감

○ 지원내용

1차 전문상담 상담 1인당 최대 7회까지 제공 (진료, 경제, 취업문제, 취업, 직무스트레스, 성격, 자존감, 연애, 기타 분야)
 > 상담결과: 상담사 연결 → 상담진행 → 상담종결
 > 해당상담: 청년이 희망하는 경력, 교육, 시간을 기준으로 마칭
 > 상담기간(5개 기관): 도원심리상담센터(연제구), 마루심리상담소(해운대구), 알로스와일심리상담센터(해운대구), 블루존심리상담연구소(금정구), 굿네이버스 좋은마음센터(부산진구)

2차 전문 1:1 상담 부산청년상담 홈페이지 내 온라인 마음상담 운영

마음치유프로그램 집단상담, 특강(자아발견, 힐링 등 마음건강 주제), 아트테라피 프로그램 등

○ 상담비용: 무료 ※ 7회 이상 상담이 필요한 경우 개인 자부담

○ 상담기간: (1회차) 2022년 6월 ~ 8월, (2회차) 2022년 9월 ~ 11월(예정)

2022 부산청년 마음상담 사업

심리상담 청년 참여자 모집 포스터

제언 6, 7

6.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7. 부처별 이기주의에서 탈피 → 유사한 사업 정리, 협업 체계 구축
- 청년내일채움공제의 정책적 효과를 해당 중소기업 근무 기간 연장으로 보는 것이 맞는지 검토 (부당 업무 지시 받는 경우 다수 발생) - 청년내일채움공제를 활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기능 강화 - 현금을 지급하는 정책에 대한 검토	- 유사한 내용으로 이뤄진 청년 대상 정책 및 서비스에 대한 재정비 - 부처 간 실적 이기주의에서 탈피 - 유사 사업 정리 및 개편 - 부처 간 협업을 통한 청년층 대상 정책 및 사업의 재 구조화 (예: 핀란드의 오토야모)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개원25주년 기념 권역별 심포지엄

『지역인재로 새로운 미래를』

부울경권 | 지역기반 미래인재 전략

발표 3

부울경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김종한 선임위원(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경성대학교 교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울경권 심포지엄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2022. 7. 14

김종한(kimjhan@ks.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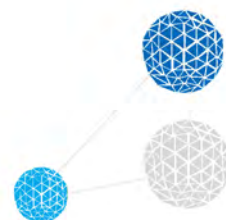
[경성대 경제금융물류학부 교수]

[부산지역인적자원개발위원회 선임위원]



CONTENTS

- I. 논의배경 및 목적
 - II.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지표와 실태분석
 - III.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 사업
 -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방안
 - V. 결론: 부울경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 부록



I. 논의배경 및 목적

1. 논의배경

- 지방소멸 위기, 인재유출 위기, 지방대학 위기의 중첩으로 부울경 지역경제 위기 심화
- 올해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정식 출범(지방자치법 근거, 2023.1.1 사무개시 예정)
-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을 통한 분야별 단계별 추진사업 구체화
- 새정부의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관련 공약과 의지 표명
- 부산광역시의 지산학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및 기업지원 방안 추진전략 제시
-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지역인재관련 정책연구기능 강화

2. 목적

- 본고에서는 부울경 지역인재 주요 지표 현황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의 인재분야 추진사업에 부가하여 지역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과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제안을 목적으로 함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 논의배경 및 목적

3. 논의영역



출처: <https://blog.naver.com/daramjuo/221420302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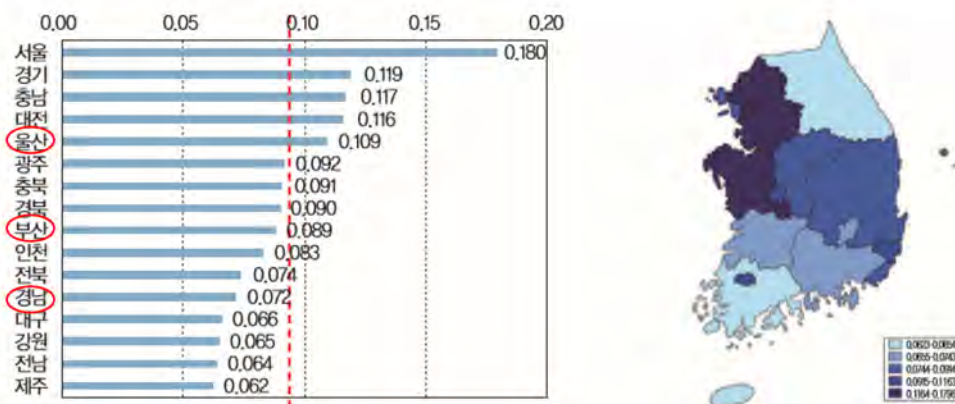
자료: 나무위키(<https://namu.wiki>)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1. 지역인재역량 비교

□ 역외인재양성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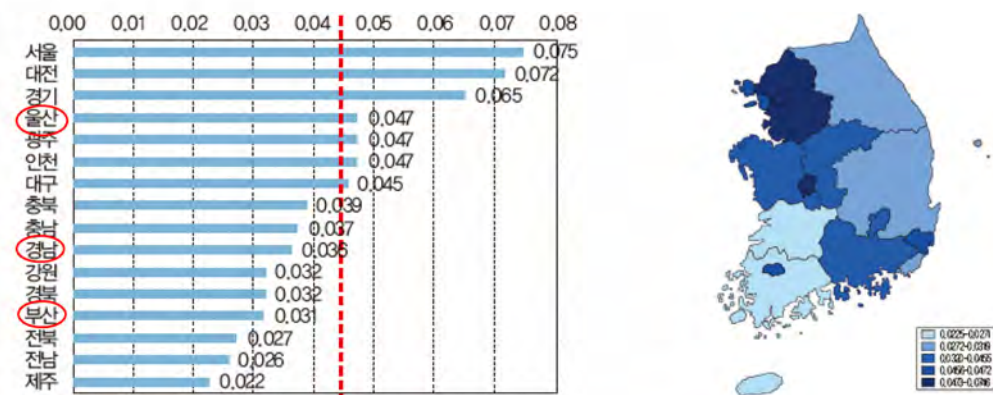
자료: 허문구(2016), 인재확보역량의 지역분포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p.5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1. 지역인재역량 비교

□ 역내인재양성지수



자료: 허문구(2016), 인재확보역량의 지역분포와 정책적 시사점, 산업연구원, p.5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1. 지역인재역량 비교

□ 시도별 4차산업혁명 관련 지역수용력 순위

시도	인적자본역량	순위	혁신역량	순위	지역경제역량	순위
서울	2.58	1	1.79	2	1.21	2
부산	0.13	4	-0.19	6	-0.44	12
대구	-0.12	7	-0.27	9	-0.48	13
인천	-0.01	6	-0.12	4	0.3	4
광주	0.09	5	-0.44	12	-0.64	16
대전	0.16	3	-0.06	3	-0.62	15
울산	-0.34	11	-0.49	15	0.19	6
세종	-0.63	16	-0.57	16	-	-
경기	1.54	2	3.18	1	1.78	1
강원	-0.50	14	-0.48	14	-0.03	7
충북	-0.29	9	-0.31	10	0.21	5
충남	-0.17	8	-0.25	8	0.42	3
전북	-0.42	13	-0.41	11	-0.53	14
전남	-0.76	17	-0.47	13	-0.36	10
경북	-0.33	10	-0.21	7	-0.31	9
경남	-0.34	12	-0.14	5	-0.41	11
제주	-0.60	15	-0.58	17	-0.29	8

주: *각 영역에서의 값이 양수이면 평균 이상을, 음수이면 평균 이하를 의미함.

자료: 이원복·정우성(2020), 『4차산업혁명에 대한 지역의 수용력 연구』, 산업연구원, p. 요약 15.

- 인적자본역량 4위, 11위, 12위
- 혁신역량 6위, 15위, 5위
- 지역경제역량 12위, 6위, 11위
- 4차 산업혁명 분야 부울경 역량 취약
- 인재유출의 주원인
- 이에 반해 충남 3위, 충북 5위로 충청권 약진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1. 지역인재역량 비교

□ 지역별 기업부설연구소 현황(2022년 2월 말 현재)

구분	수도권				중부권						제주
	서울	인천	경기	소계	대전	세종	충남	충북	강원	소계	
연구소수	13,521	1,978	14,046	29,545	1,708	204	1,506	1,272	510	5,200	189
중견기업	305	67	526	898	27	6	100	78	13	224	1
중소기업	13,055	1,881	13,265	28,201	1,636	187	1,364	1,162	491	4,840	187
연구원수	99,295	15,432	172,633	287,360	17,408	1,529	12,955	9,507	2,582	43,981	691
중견기업	9,110	2,245	23,619	34,974	884	143	1,957	1,659	273	4,916	8
중소기업	68,994	8,502	69,903	147,399	9,393	859	6,808	5,470	2,188	24,516	673

구분	영남권				호남권				해외(기타)	총계
	부산	울산	대구	경남	경북	소계	광주	전남	전북	소계
연구소수	1,791	583	1,423	1,954	1,503	7,264	781	807	990	2,578
중견기업	35	34	36	84	69	258	17	20	25	62
중소기업	1,745	531	1,377	1,829	1,400	6,882	760	776	962	2,488
연구원수	8,508	4,422	7,611	15,763	10,438	46,742	3,632	3,345	4,803	11,780
중견기업	721	595	1,105	3,357	1,294	7,072	238	168	513	919
중소기업	7,552	2,201	6,003	8,057	6,031	29,844	3,148	2,842	3,795	9,783

자료: 기업부설연구소/전담부서 신고관리시스템(<https://www.md.or.kr/user/main.do>)

- 2022년 현재 전국 총 44,785개, 연구원수 390,734명
- 부산은 1791개(4.0%) 5위, 연구원수 8,508명(2.2%) 9위
- 연구원수는 인천, 대전의 절반수준이고 경북, 충북보다 적음
- 중견기업부설연구소가 35개와 721명에 불과
- 연구소수 수도권 65.2%, 지방 34.8%
-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 확대를 위해 기업부설연구소 분산정책이 필요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1. 지역인재역량 비교

□ 4년제 대학 연구소 보유 및 전임연구원 현황(2019)

구분	대학 수(A)	연구소 수(B)	대학당 연구소 수(B/A)	전임연구원 수(C)	연구소당 전임연구원 수(C/B)
국공립	40	1,481	37	2,179	1.5
사립	147	3,666	25	2,192	0.6
전체	187	5,147	28	4,371	0.8

자료: 대학교육연구소(2020.12.24) 보도자료

□ 4년제 대학 연구소 보유 현황(2020)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연구소수(개)	1,800	406	165	198	156	254	75	18	510
지역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합계
연구소수(개)	218	214	370	313	123	406	130	59	5,415

자료: 대학알리미 2020

- 유명무실한 대학부설연구소 난립 심각
- 연구소의 62%, 연구원 행사 전무한 '유령연구소'
- 전체 연구소의 81%, 전임연구원 '0'
- 전체 연구소의 69%, 학술행사 개최실적 '0'
- 유명무실한 연구소의 과감한 정리와 지역산업특화 연구소 집중 육성
- 인재 집적과 산학협력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
- 부산지역 대학연구소 수 406개 (3위)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2. 지방대학 위기 현황

□ 2021년 수도권/비수도권 충원율 현황

구분	전체			일반대			전문대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모집인원	입학인원 (충원율)	미충원 (미충원율)
전국	473,189	432,603 (91.4)	40,586 (8.6)	318,013	301,617 (94.8)	16,396 (5.1)	155,176	130,986 (84.4)	24,190 (15.6)
수도권	190,066	179,938 (94.7)	10,128 (5.3)	122,065	121,036 (99.2)	1,029 (0.8)	68,001	58,902 (86.6)	9,099 (13.4)
비수도권	283,123	252,665 (89.2)	30,458 (10.8)	195,948	180,581 (92.2)	15,367 (7.8)	87,175	72,084 (82.7)	15,091 (17.3)

주1) 대교협(198교), 전문대교협(133교) 신입생 모집 결과('21.3. 등록률 기준) 자료 분석

주2) 2021년 입학인원은 정원 내 입학생 기준으로, 정원 외 입학생 제외

자료: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지원 전략, 2021.5.20.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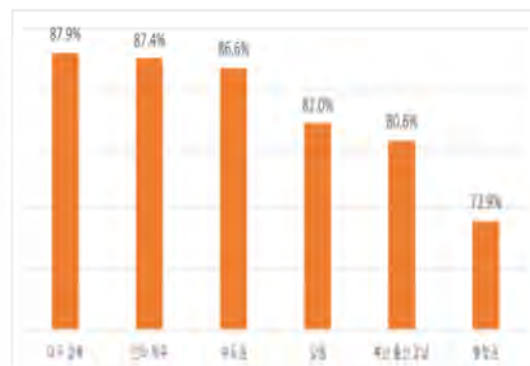
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2. 지방대학 위기 현황

□ 권역별 신입생 충원율 현황(2021)



[4년제 대학]



[2-3년제 전문대학]

자료: 교육부,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력, 2021.05.20; 조인석(2021), 지방대학 신입생 충원 현황과 정책 및 입법과제, NARS 현안분석, 제204호, P.7. [그림 4] 재인용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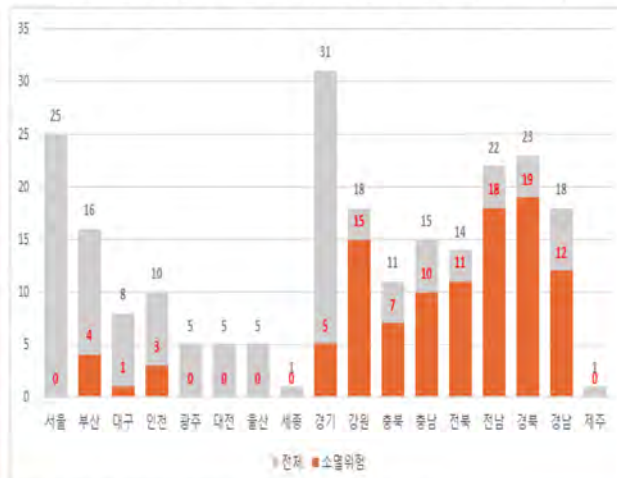
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2. 지방대학 위기 현황

□ 지방소멸위험지수와 지방대학



□ 시도별 시군구 소멸위험지역 현황(2020.4)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3. 권역별 인재 실태분석

□ 전산업 및 제조업의 석사 이상 고학력자 편중도 현황

권역	전 산업						제조업					
	전 학력자		고학력자		고학력자 비율		전 학력자		고학력자		고학력자 비율	
	비중 (A)	평균 임금(B)	비중 (C)	평균 임금(D)	C/A	D/B	비중 (A)	평균 임금(B)	비중 (C)	평균 임금(D)	C/A	D/B
전국	100.0	317	100.0	487	-	1.54	100	329	100	533	-	1.62
수도권	서울	24.5	350	32.6	1.33	1.50	7.9	330	13.5	580	1.71	1.76
	인천	5.1	295	3.5	0.69	1.49	6.7	309	6.6	475	0.99	1.54
	경기	24.0	315	23.8	0.99	1.57	31.3	336	42.3	571	1.35	1.70
	소계	53.7	329	59.8	1.11	1.54	46.0	331	62.5	562	1.36	1.70
수도권-비수도권	7.4	25	19.8	52	2.65	2.08	-8.0	3	25.0	79	-3.13	-26.33
비수도권	소계	46.3	304	40.2	0.87	1.50	54.0	328	37.5	483	0.69	1.47
	충청	11.4	317	13.5	1.18	1.48	14.9	336	13.9	485	0.93	1.44
	전라	8.3	304	7.2	0.87	1.41	7.4	337	4.4	481	0.59	1.43
	대경	8.8	304	6.7	0.76	1.49	11.9	327	6.8	469	0.57	1.43
	동남	14.2	297	9.6	0.68	1.55	18.5	321	11.9	493	0.64	1.54

자료: 김종한·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일자리위원회, p.121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18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3. 권역별 인재 실태분석

□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비 비중(2019년)

(단위 : 십억원, %)

권역		합계	제조업	통신	정보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전국		71,507	62,555	7,582	437	706	183
수도권	서울	13.7	10.0	62.5	66.2	9.9	32.2
	인천	3.2	2.6	0.0	0.7	10.3	23.0
	경기	61.6	66.0	35.6	19.6	59.3	27.3
	소계	78.5	78.6	98.1	86.6	79.5	82.6
비수도권	소계	21.5	21.4	1.9	13.4	20.5	17.4
	대전	4.0	3.1	1.8	2.7	3.6	5.1
충청권	세종	0.3	0.3	0.0	0.2	0.0	0.1
	충북	1.6	1.6	0.0	0.5	0.0	1.9
	충남	3.8	4.2	0.0	0.1	0.0	0.9
	소계	9.7	9.3	1.8	3.5	3.7	7.9
전라권	광주	0.5	0.5	0.1	1.0	0.0	0.7
	전북	0.7	0.7	0.0	0.6	1.0	0.9
	전남	0.6	0.6	0.0	2.7	0.7	0.7
	소계	1.8	1.7	0.1	4.3	1.7	2.3
대경권	대구	1.1	1.1	0.0	1.3	0.1	0.8
	경북	3.1	3.3	0.0	0.3	0.3	2.2
	소계	4.1	4.4	0.0	1.6	0.4	3.1
부울경권	부산	1.1	0.9	0.0	1.4	4.4	1.8
	울산	1.2	1.3	0.0	0.5	0.8	0.6
	경남	3.1	3.4	0.0	0.6	9.5	1.1
	소계	5.4	5.6	0.0	2.5	14.8	3.4
강원·제주권	강원	0.3	0.3	0.0	0.7	0.0	0.5
	제주	0.1	0.0	0.0	0.8	0.0	0.1
	소계	0.4	0.4	0.0	1.5	0.0	0.7

자료: 김종한·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일자리위원회, p.136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3. 권역별 인재 실태분석

□ 주요 산업별 연구개발인력 비중(2019년)

(단위 : 천명, %)

권역	합계	제조업	통신	정보	금융·보험	전문·과학기술
전국	462	339	3	11	1	29
수도권	서울	22.3	13.0	77.1	65.3	18.7
	인천	4.6	4.5	0.0	1.0	7.8
	경기	45.2	51.7	20.4	18.8	55.1
	소계	72.1	69.2	97.5	85.1	77.0
비수도권	소계	27.9	30.8	2.5	14.9	18.5
	대전	4.5	4.2	2.1	3.9	0.8
	세종	0.3	0.4	0.0	0.2	0.0
	충청	2.2	2.6	0.0	0.5	0.0
충청권	충남	3.6	4.5	0.0	0.2	0.1
	소계	10.6	11.7	2.1	4.8	0.8
전라권	광주	1.1	1.0	0.2	0.9	0.0
	전북	1.3	1.3	0.0	0.7	1.1
	전남	0.9	0.8	0.0	1.2	0.9
	소계	3.2	3.2	0.2	2.8	3.4
대금권	대구	2.2	2.3	0.0	2.0	0.4
	경북	3.1	3.8	0.0	0.5	0.8
	소계	5.3	6.1	0.0	2.5	1.2
동남권	부산	2.5	2.3	0.1	2.2	5.4
	울산	1.3	1.5	0.0	0.6	1.1
	경남	4.3	5.3	0.0	0.9	7.3
	소계	8.0	9.1	0.1	3.7	13.8
강원·제주권	강원	0.7	0.7	0.0	0.6	0.0
	제주	0.2	0.1	0.1	0.6	0.0
	소계	0.8	0.7	0.1	1.2	0.0

자료: 김중환·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일자리위원회, p.121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Ⅱ. 부울경 지역인재 관련 주요 지표와 실태분석

3. 권역별 인재 실태분석

□ 주요 산업별 LQ, 연구개발비 연구인력 비중 상관관계

(단위 : 값, %)

지역	LQ	제조업			통신			정보			금융 및 보험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인력 비중	LQ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인력 비중	LQ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인력 비중	LQ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인력 비중	LQ	연구개발비 비중	연구인력 비중	LQ
서울	0.28	10.0	13.0	1.33	62.5	77.1	2.81	66.2	65.3	1.62	9.9	18.7	1.96	32.2	38.2	
인천	1.23	2.6	4.5	0.7	0.0	0.0	0.22	0.7	1.0	0.74	10.3	7.8	0.58	23	14.2	
경기	1.37	66	51.7	0.78	35.6	20.4	0.86	19.6	18.8	0.62	59.3	55.1	1.04	27.3	24.7	
대전	0.55	3.1	4.2	1.11	1.8	2.1	1.02	2.7	3.9	1.1	3.6	0.8	1.53	5.1	5.2	
세종	0.9	0.3	0.4	0.66	0.0	0.0	0.34	0.2	0.2	0.5	0.0	0.0	1.08	0.1	0.1	
충청	1.58	1.5	2.6	0.81	0.0	0.0	0.23	0.5	0.6	0.69	0.0	0.0	0.6	1.9	2.0	
충남	1.66	4.2	4.5	0.96	0.0	0.0	0.12	0.1	0.2	0.63	0.0	0.1	0.47	0.9	1.0	
광주	0.75	0.5	1.0	1.63	0.1	0.2	0.34	1.0	0.9	1.15	0.0	0.0	0.65	0.7	1.1	
전북	0.90	0.7	1.3	1.22	0.0	0.0	0.18	0.6	0.7	1.09	1.0	1.7	0.61	0.9	1.1	
전남	0.87	0.6	0.8	1.23	0.0	0.0	0.25	2.7	1.2	0.88	0.7	0.9	0.44	0.7	1.2	
대구	0.99	1.1	2.3	0.98	0.0	0.0	0.36	1.3	2.0	1.13	0.1	0.4	0.59	0.8	1.5	
경북	1.53	3.3	3.8	0.88	0.0	0.0	0.18	0.3	0.5	0.69	0.3	0.8	0.49	2.2	2.6	
부산	0.81	0.9	2.3	0.79	0.0	0.1	0.36	1.4	2.2	1.11	4.4	5.4	0.66	1.8	2.9	
울산	1.83	1.3	1.5	0.98	0.0	0.0	0.19	0.5	0.6	0.85	0.8	1.1	0.63	0.8	1.1	
경남	1.59	3.4	5.3	0.81	0.0	0.0	0.18	0.6	0.9	0.79	9.5	7.3	0.51	1.1	1.8	
강원	0.51	0.3	0.7	1.36	0.0	0.0	0.26	0.7	0.6	1.11	0.9	0.0	0.51	0.5	1.0	
제주	0.24	0.0	0.1	0.78	0.0	0.1	0.51	0.8	0.6	0.92	0.0	0.0	0.54	0.1	0.3	
LQ	-	0.17	0.15	-	0.19	0.26	-	0.37	0.37	-	-0.19	-0.07	-	0.61	0.71	
연구개발비 비중	0.17	-	0.09	0.19	-	0.09	0.09	-	0.10	-0.19	-	0.37	0.61	-	0.09	
연구인력 비중	0.15	0.09	-	0.06	0.09	-	0.09	0.10	-	-0.07	0.37	-	0.71	0.09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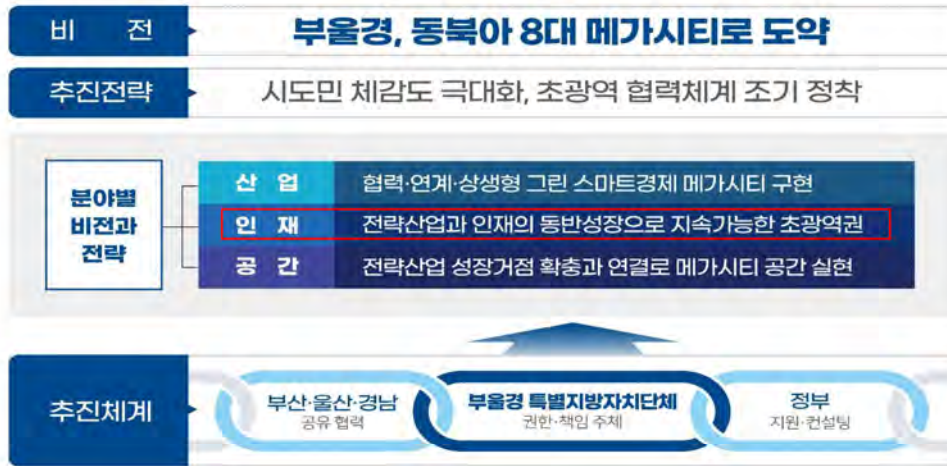
자료: 김중환·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일자리위원회, p.141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1. 비전 및 전략

□ 특별연합의 비전 및 전략



자료: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요약]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1. 비전 및 전략

□ 부울경 초광역권 전략산업



※ (주력) 부울경 강점과 미래 산업전망 고려, 집중육성

(코어) 주력산업 경쟁력 확보 핵심전략

(혁신기반) 전략산업의 혁신성장 지원기반

자료: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요약]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2. 인재분야

□ 현황 및 추진방향

- (현황) 인재양성 체계 및 산학연 협력기반 부족, 유망 신산업, 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 수도권 집중*으로 인재 유출 가속화

* 부울경 기업규모 영세(소기업 96%) 및 전체고용의 대부분(74.5%)가 중소기업에서 발생

- (방향) 인재 미스매치 극복을 위한 ▲산업별·수준별 인재양성 기반 구축 및 인재 확보를 위한 ▲안정적인 교육, 근무, 정주환경 조성

자료: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요약]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2. 인재분야

□ 발전전략: 2대 전략분야 7개 사업(1단계 6개, 3단계 1개)

인재분야(총 7개 중 6개)		
1단계	인재양성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AI융합혁신 프로젝트 발굴 및 고급인재 양성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사업 ▶부울경 메가시티 전략산업 맞춤형 특화훈련
	정주환경 조성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사업 ▶부울경 초광역 협력 산학융합지구 육성
3단계	인재양성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부울경 캠퍼스 구축

자료: 부울경 초광역권 발전계획 [요약]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

3. RIS(Ri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역혁신플랫폼)사업

□ 2022년 운영 중인 6개 지역혁신플랫폼 개요 (총 2,440억원)

지자체	핵심분야	대학	지역 혁신기관	국비 지원
광주·전남 (20년 선정)	•에너지신산업 •미래형운송기기	전남대(총괄) 목포대(중심) 등 15개 대학	49개	480억 내외
울산·경남 (20년 선정)	▶스마트제조·에너지·이링 ▶스마트제조 ICT ▶스마트공동체 ▶미래모빌리티 ▶저탄소 ▶그린에너지	경상국립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울산대(중심) 등 13개 대학	41개	480억 내외
충북 (20년 선정)	•제약바이오 •정밀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충북대(총괄) 한국교통대(중심) 등 15개 대학	48개	300억 내외
대전·세종·충남 (21년 선정)	▶모빌리티 소재부품장비 ▶모빌리티ICT	충남대(총괄) 공주대(중심) 등 24개 대학	68개	480억 내외
강원 (22년 예정)	▶정밀의료 ▶디지털헬스케어 ▶스마트수소에너지	강원대(총괄) 연세대(미래(중심) 강릉원주대(중심) 등 15개 대학	60개	300억
대구·경북 (22년 예정)	▶전자정보기기 ▶미래차융합부품	경북대(총괄) 영남대(중심) 등 23개 대학	214개	400억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2.4.19)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3. RIS(Ri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역혁신플랫폼)사업

□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 개요

1. 경남 플랫폼

핵심분야

- 스마트 제조 엔지니어링, 스마트 제조 ICT, 스마트 공동체

협업기관

- (대학) 경상대(총괄), 창원대(중심), 경남대(중심) 등 17개 대학
- (기관) 경남교육청, LG전자, LH 등 49개 지역혁신기관

지역협업위원회

- (위원장) 경상남도지사, 경상대학교 총장(공동)
- (위원) 경상남도교육감, 경남테크노파크 원장, 한국전기연구원장 등 23명

지역현황

- 경남지역 경제성장률 변화 ('10) 6.1% → ('18) 0.4%
- 경남 고령화 비율 ('20) 16.3%

목표

- 청년고용률 확대(25% → 30%)
- 청년유출률 감축(8.5% → 3.5%)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0.7.16)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3. RIS(Ri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역혁신플랫폼)사업

□ USG 공유대학 기반 대학교육 혁신 개요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0.7.16)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3. RIS(Ri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역혁신플랫폼)사업

□ 충청지역혁신플랫폼 개요

2. 충북 플랫폼

핵심분야

- 제약바이오, 정밀의료·의료기기, 화장품·천연물

협업기관

- (대학) 충북대(충광), 한국교통대(충신) 등 15개
- (기관) 충북교육청, 청주상공회의소, 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등 44개

지역협업위원회

- (위원장) 충북도지사, 충북대학교 총장(공동)
- (위원) 충북교육감, 충북테크노파크 원장 등 6명

지역현황

- 바이오헬스산업 생산규모 전국 2위, 기업 수 3위
- 바이오헬스산업 R&D 애로사항 1위 - '전문인력 및 원천기술 부족'('17, 충북 TP)

목표

충북바이오헬스 산업성장(전국 대비 시장점유율) : 25% → 35%
논문특허수/기술이전사업화 10%(년)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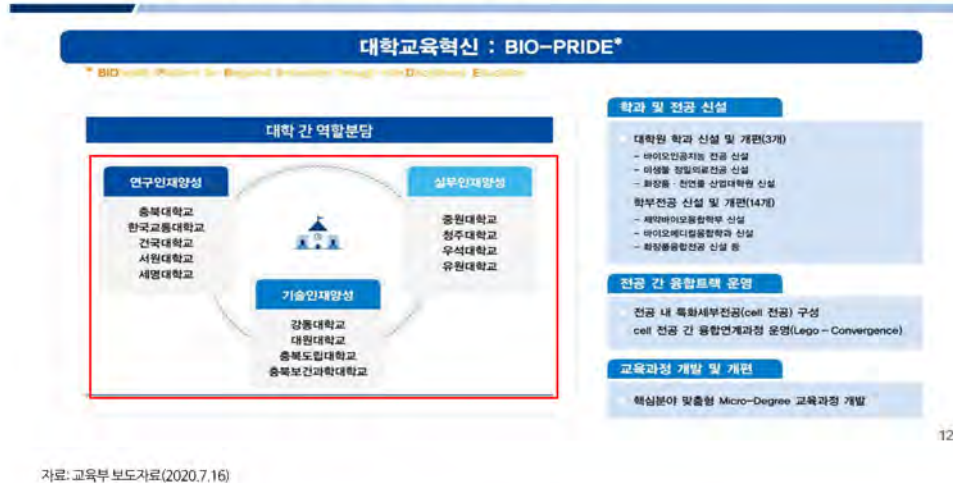
자료: 교육부 보도자료(2020.7.16)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3. RIS(Rigional Innovation Strategy: 지역혁신플랫폼)사업

□ 충북 지역혁신플랫폼 대학교육 혁신 개요



12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Ⅲ.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인재분야 발전계획과 RIS사업

4. 현단계 부산의 상황 진단

□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현황 및 과제

- 2022년 4월 19일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정식 출범
- 2023년 1월 1일 본격적인 사무개시(예정)
- 민선8기 지방선거 이후 부산의 적극성 대비 울산과 경남의 소극적 태도 움직임
- 인재분야 7대 추진사업이 인재양성과 정주환경 조성으로 지나치게 협애함
- 인재분야에 대해 인재양성 뿐만 아니라 인재이식, 인재집적, 인재유치, 인재육성을 포함하는 그랜드 마스터플랜의 수립이 긴급

□ RIS사업의 현황과 과제

- 울산경남RIS사업 3년차 수행
- 부산RIS사업의 난항
- 부울경RIS사업으로 발전적 통합방안 마련 긴급
- 이를 위한 부산의 RIS사업에 대한 발상의 전환 요구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V. 부울경 지역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1. 부울경 지산학금 협력 인재집적의 기본 방향

- ☐ 부산의 지산학 인재집적 범위를 부울경특별연합 인재정책분야로 확장하자 (범위)
- ☐ 부울경 인재정책을 국가인재분산정책 및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연계하자 (연계)
- ☐ 부울경 지역의 다양한 인재집적 생태계를 조성하자 (생태계)
- ☐ 부울경 통합 RIS사업을 포함하는 지산학금 협력 인재정책을 수립하자 (통합)
- ☐ 부울경 지역산업특화 인재집적 허브를 구축하자 (수요)
- ☐ 부울경 지역인재정책 및 중개 허브를 구축하자 (매칭)
- ☐ 부울경 글로벌 인재육성 허브를 구축하자 (공급)
- ☐ 부울경 준공영제 인재 재교육 허브를 구축하자 (공급)
- ☐ 부울경 지산학금 협력을 근간으로 '부울경 인재허브 네트워크'를 구축하자 (네트워크)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2. 부울경 주요 인재정책 총괄

유형	세부추진과제
지역인재 이식방안	· 공공기관 2차 이전
	· 다양한 역외 R&D 기관(연구소) 유치
	· '기업상속공제' 제도 활용한 기업 유치
지역인재 유치방안	· 해외 및 수도권 역외 우수인력 유치 전용 주택 지원
	· 해외 및 수도권 R&D인재 유치를 위한 패키지 인센티브 제공
	· 외국인 석박사급 인재 지방중소기업 유인제도 개선 및 확산
지역인재 집적 생태계 조성방안	· 지역산업특화 '응용R&D연구원' 설립 (인재집적 허브)
	· '지역인재기금' 조성
	· '(가칭)지역일자리파크' 설립 (일자리정책&중개 허브)
	· 권역별 기업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매칭
	· T&T(기술인재)매칭 플랫폼 구축과 지역별 센터 운영

자료: 김중환·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일자리위원회, pp.191-193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2. 부울경 주요 인재정책 총괄

유형	세부추진과제
지방중소기업 인재집적방안	· 수도권 베이비부머 퇴직인재분산정책 도입 · 지역 퇴직인재의 중소기업 및 사회적경제기업 참여지원
창업인재 집적 생태계 조성방안	· 지역 '헤이그라운드' 조성 · 대학 캠퍼스 내 '반값 지식산업센터' 운영 · 인재가 선호하는 '관용'과 '신뢰' 사회적 자본 축적
지산학 인재양성 및 육성 개편방안	· 지역 '보통청년'을 위한 '인내자본' 투자 촉진 · 지역 인재채용관련 제도 정비 · 부울경 글로벌 인재육성 허브 구축 (인재육성 허브) ·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 인재 재교육 허브 구축 (인재 재교육 허브)

자료: 김중환·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열자리위원회, pp.191-193

세부추진과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김중환·박성익(2022)의 제5장을 참조하기 바람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3. 부울경 인재집적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가칭) 부울경산업과학인재융합원(BUGISTCA) 설립

- 부울경특별연합의 인재집적 허브 역할 담당
- 부산 울산 경남의 테크노파크, 경제진흥원, 산학융합원과 네트워크 연계
- 부산에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이 있으나 울산과 경남에는 부재
- 현재 BISTEP과 부산TP의 지산학협력센터에서 인재집적 기능 강화 및 부울경 확장 모델

□ 지역산업특화 (가칭) '장영실연구원'(응용R&D연구원) 설립 및 운영

- 설립자금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매칭 인재기금 활용
- 운영자금 : 초창기 5년간 중앙정부 50%+지방정부 50%
5년 후부터 중앙정부 30%+ 지방정부 20%+ 연구원 자체 비즈니스 조달 50%
- 법인형태: 민간주도형 반민반관 재단법인/ 기존의 대학중심 연구혁신단지와 차별화/ TP+상의+ 대학 컨소시엄
- 운영형태: 독일 프라운호퍼연구소 운영방식(중앙정부 30%지원, 운영비의 70% 기업 프로젝트를 통해 직접 조달)의 벤치마킹
- 참여대학: 연구소 건물 임차 유상제공, 캠퍼스 이용 무상 제공, 스타트업 기업관 유상제공, 캠퍼스내 기숙형 연구원 아파트 제공, 연구원에 대한 겸임교수직 제공, 연구원 정년퇴직 후 겸임·특임·석좌교수 우선 채용
- 장기적으로 성과평가를 통해 부울경권에 지역산업특화 '장영실연구원' 5개소 이상 확대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3. 부울경 인재집적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가칭) 부울경 T&T(기술인재) 매칭 플랫폼 구축 (네트워크 기능)

- 부울경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인재 구인 및 구직 매칭
- 부울경지역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애로와 관련 인재(전문가) 매칭
- 부울경지역 기업이 관련 기술 핵심어(key word)만으로 관련 전문가의 프로필 확인이 가능하고, 관련 인재가 자신의 전공 기술분야 key word만으로 지역기업의 기술애로 요인이 확인 되는 알고리즘을 **부울경 인재집적 허브 내 구축**

□ 부울경 기업부설연구소 및 대학부설연구소 매칭을 통한 경쟁력 강화(네트워크 기능)

- 2022년 2월 현재 부울경 기업연구소는 4,338개로 전국 기업부설연구소의 9.7%
- 대학부설연구소는 부산 406개(7.5%)로 서울과 경기 다음으로 많음
- 유사분야 기업부설연구소와 대학부설연구소 매칭 기능을 **부울경 인재집적 허브 내 구축**
- 기업부설연구소와 대학부설연구소의 공동참여 연구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설
- 내실 있는 기업부설연구소와 대학부설연구소의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경쟁력 강화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4. 부울경 일자리정책&중개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가칭) 부울경고용정보원 설립

- **부울경 일자리정책 허브 기능 담당(부울경특별연합 추진과제)**
- 부울경특별연합 일자리정책 구상기능 수행 안
- 부울경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DB 구축 전담기구
- 부울경 지역주도 일자리 정책 싱크탱크 기능
- 중앙정부(고용노동부)와 1:1 매칭으로 설립 제안

□ (가칭) 부울경 각 지역별 일자리파크 조성

- **부울경 일자리 중개 허브 기능 담당**
- 일자리파크의 기능 범위에 따라 통폐합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존 일자리사업 수행 담당자 정규직 전환(100여명) + 정책연구(20명) + 데이터 집적 및 플랫폼 운영(20명) + 기타 행정사무(10명) 등 총 150여명 규모를 상정
- 물론 광역시도의 규모 및 역량에 따라 일자리파크 규모 및 인원은 탄력적으로 적용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4. 부울경 일자리정책&중개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각 지역일자리파크의 운영 방안

- 운영방안의 하나로는 일자리파크 매칭펀드 조성을 제안. 예를 들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매칭 비율을 7:3 혹은 5:5 등으로 조성하여 공동운영 (테크노파크와 동일)
-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역일자리파크 원장은 지자체 장이 임명하되 반드시 중앙정부와 협의를 거치도록 함
- 국가고용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소통을 위해 중앙공무원, 노동, 고용, 인적자원개발 관련 국책연구기관 연구원 파견 및 교차근무제 도입
- 지역 일자리 및 인적자원개발 통합 거버넌스 기능 및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

□ 부울경 일자리정책&중개 허브 구축 시나리오

- 현재 울산에만 (재)울산일자리재단 설립
- 먼저 부울경고용정보원 설립 시 지역별 일자리파크는 중개기능 허브로 역할
- 부울경고용정보원 설립이 당장 어려운 경우 각 지역별 일자리파크를 중앙과 지방의 매칭으로 설립하고 일자리정책과 중개 허브 담당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5. 부울경 글로벌 인재육성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가칭) 부울경 고등교육위원회 구성 및 운영

- **부울경 글로벌 인재육성 허브 기능 담당 (필요시 부산시부터 선구적으로 구성하여 운영)**
- 부울경 국립대학을 통합 및 연합하여 글로벌 대학 순위 100권을 지향하는 명문대학으로 육성
- 부울경권에는 국립대학으로 4개(부산대, 부경대, 경상대, 창원대) 일반종합대학과 한국해양대, 부산교대, 진주교대를 미국 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종합대학군과 같이 재편하는 전략이 시급
- 경쟁력 있는 지방사립대학을 중심으로 지역산업 특성화 학과(학부)의 글로벌화가 필요
- 장기적으로는 지역산업 특성화 학과(학부)가 적어도 글로벌 200위권 학과에 진입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인센티브 정책과 제도 개혁이 필요
- 현재 울산경남 RIS사업을 부울경RIS사업으로 확장
- **부울경 고등교육의 미래를 담보할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로 구성**

자료: 김중환·박성익(2021), 지방대학 대위기와 인재 허브 네트워크 구축, 부울경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사회연구 29권 제4호 참조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6. 부울경 준공영제 인재 재교육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가칭) 부울경 인재평생교육진흥원 설립

- 부울경지역 재교육 및 평생교육 허브 기능 담당
- 부산의 경우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중
- 중장기적으로 부울경 지역 전문대학 및 4년제 대학의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 전환의 중추기능 담당 (이미 지방 일부 대학에서는 자발적으로 성인교육 중심대학으로 전환)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교육체계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할

	UC (캘리포니아 대학교)	CSU (캘리포니아주립대학교)	CCC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
설립연도	1869년	1857년	1967년
교육기간	4년제	4년제	2년제
학문성격	연구중심	교육중심	교양, 평생교육, 직업교육 중심
학위수여	전문, 학사, 석사, 박사	전문, 학사, 석사	전문학사, 편입기회
캠퍼스 수	10개	23개	115개
학생 수	295,216명(2020년)	417,112명(2020년)	210만~240만명 추산
전임교원 수	226,125명	47,000여명	-
연간 평균 학비	34,000~47,000달러	9,000~14,000달러	6,000~9,000달러

자료: 네이버 지식백과, 나무위키, 위키백과, 각 대학 홈페이지 등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6. 부울경 준공영제 인재 재교육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캘리포니아 커뮤니티 칼리지(ccc)의 주요 특징

- 교육과정: 175 가지의 부문에 달하는 전문학사 및 전문직업 교육 과정이 존재
- 연령분포: 20세 이하 26.8%, 20-24세 30.9%, 25-39세: 26.9%, 40세 이상 15.4%
- 인종분포: 히스패닉 44.5%, 백인: 25.9%, 아시안: 11.5% 등
- 학점당 수업료: 학점 당 약 100달러에서 300달러 차등(지구내/외, 재향군인, 인접주, 타주, 유학생) 65세 이상 성인을 위한 수업료 면제 등
- 학사편입: 210만명 중 해마다 약 8만명 정도가 UC 혹은 CSU로 편입
- 이공계열 편입: UC의 이공계열 48%가 CCC에서 편입된 학생
- 캘리포니아주 퇴역군인(veterans)의 42%가 이곳에서 특정분야 업무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전문학사

□ 미국 캘리포니아주 고등교육체계와 커뮤니티 칼리지의 역할

- 캘리포니아 주 소속 간호사 중 70%가 CCC에서 양성
- 캘리포니아 주의 소방관, 경찰과, 응급구조사의 80%가 CCC에서 양성
- UC 졸업생의 29%, CSU 졸업생의 59%가 CCC 출신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성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6. 부울경 준공영제 인재 재교육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대한 기본구상

구분	준공영제커뮤니티칼리지	공영형 사립대학	정부책임형 사립대학
목적	평생학습·직업교육 중심	고등교육 공정성	고등교육 공정성
교육 대상	모든 시도민	정규 학령인구	정규 학령인구
전환 대상	사립전문대·사립대학	일부 사립대학	모든 사립대학
이사회 구성	공익이사진 30% 이상	공익이사 50% 이상	공익이사 50% 이상
정부 예산지원	적자분에 대한 지원	50%	50%
예산지원처	중앙과 지자체 매칭	중앙정부(교육부)	중앙정부(교육부)
선정 방향	희망사립대학및전문대학	일부 분규대학	모든 사립대학
애로 요인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	진행속도 느림	과도한 예산 부담
장기적 비전	시군별1커뮤니티칼리지	24년 30개 전환	모든 사립대학 전환

자료: 김종한(2021), 지방대학 대위기와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2021년 한국경제통상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조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6. 부울경 준공영제 인재 재교육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 CCC는 처음부터 주립이기 때문에 우리 대학의 현실에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려움:
사립대학 80% 이상
- 부울경지역 전문대학 및 4년제 사립대학의 재정난 및 충원을 위기 직면
- 부울경 지역 초고령사회로 진입에 따른 온오프라인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재교육 수요 증대
- 새정부에서는 지방정부의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대폭 확충과 평생교육 확대 예고로 지방정부의 대학에 대한 책무와 권한 증대
- 고용노동부의 평생직업능력개발정책의 강화(4차산업혁명으로 재교육 주기가 짧아짐)
- 오프라인 평생교육 및 온라인 재교육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전환된 '커뮤니티 칼리지' 운영방식으로 '준공영제' 도입 필요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V. 부울경 주요 인재집적 생태계 조성 방안

6. 부울경 준공영제 인재 재교육 허브 및 네트워크 조성 방안

□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에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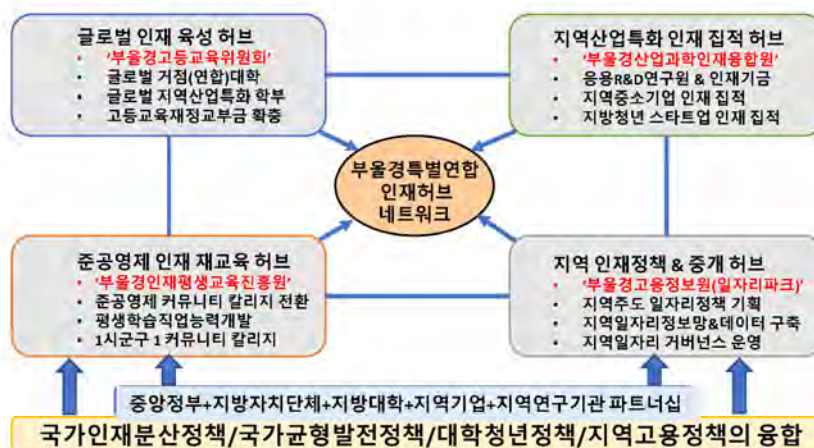
- 마치 버스준공영제와 유사하게 '지역 커뮤니티 칼리지' 운영주체는 사학재단이 그대로 유지하되, 대학재정은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식
- 철저한 감사 시스템하에 적자분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지원해주는 제도가 커뮤니티 칼리지 준공영제
- 시범적으로 부울경에서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을 공모하여 선정 도입한다면 부울경 지방대학 위기 극복은 물론 '평생학습과 직업훈련의 인재 재교육 허브' 구축의 기회로 전환하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임
- 부산시의 경우 특히 RIS사업 후발 주자이자 초고령사회 진입과 지방소멸 위험 대도시로서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 전환 정책으로 울산과 경남지역 평생교육 및 재교육 시스템 구축을 선도하는 차별화 전략이 긴요**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V. 결론: 부울경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1. 부울경특별연합 인재허브 네트워크

부울경 인재 허브 네트워크 개념도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V. 부울경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2. 부울경특별연합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의 선도적 역할

□ 부울경 인재기금 조성에 주도적 역할

- 부울경 각 지자체별로 연차적으로 1,000억원씩 지역인재기금 조성 시 중앙정부가 1:1 매칭 펀딩 (**부울경 인재정책 재원확보 방안**)
- 예컨대 부울경의 경우 각 지자체별 1,000억원 조성 시 부울경권 총 기금은 6,000억원
- 중앙정부는 한국판 디지털 뉴딜 자금, 과학기술투자 예산, 지역균형발전 예산, 초과 징수된 세수 등 활용
- 지자체는 지자체 세수와 지역연고 대기업, 지역 대중소기업, 지역주민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마련
- 기금사용처: 초창기 연구소 건물리모델링 및 기자재 인프라 지원, 대학에 건물임대료 지원, R&D인재 유치 인센티브제 (기숙비, 주택 임차비, 기타 복리후생비 등) 지원
- 2025년까지 기금조성 1차 완료 후 중장기 R&D 인재집적을 위한 기금축적방안 마련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V. 부울경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2. 부울경특별연합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의 선도적 역할

□ 부울경산업과학인재융합원(인재집적 허브)과 응용R&D연구원 설립에 주도적 역할

- 부울경 가운데 부산에만 있는 부산산업과학혁신원(BISTEP)의 역할을 **고급 인재집적** 측면에서 강화하여 부울경 인재집적 허브 구축에 기여
- 지역테크노파크, 상의, 대학의 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지산학 협력**으로 인재집적의 핵심인 (가칭) 장영실연구원(응용R&D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기여

□ 부울경고용정보원 및 지역일자리파크(**일자리정책 및 중개 허브**) 조성에 주도적 역할

- **지도주도 일자리 정책의 기획과 구상기능 강화**를 위해서는 부울경고용정보원의 설립이 긴급요
- 지역일자리재단을 보다 강화된 지역일자리파크 설립을 통해 일자리정책 및 일자리 중개(매칭)기능을 지역 테크노파크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지역 산업정책과 지역고용정책의 균형과 중앙과 지역의 긴밀한 연계가 가능
- 일자리재단은 지방정부 산하이지만 지역일자리파크는 테크노파크 처럼 중앙과 지방의 공동기관이라는 차별성을 지님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V. 부울경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2. 부울경특별연합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부산의 선도적 역할

□ 부울경고등교육위원회(인재육성 허브) 구성에 주도적 역할

- 고등교육에 대한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무 강화 예상
- 현재 교육부 주도로 **지역협업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의 공정한 운영과 고등교육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대학구성원, 학부모, 전문가, 시민단체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심의기구 역할**
- 모범적인 부울경고등교육위원회 구성을 위해 시범적으로 부산시가 자체적으로 낮은 단계의 부산광역시고등교육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글로벌 인재육성 허브 기능 강화

□ 부울경인재평생교육진흥원(인재 재교육 허브) 구성에 주도적 역할

- 전국에서 유일하게 부산에서 부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준공영제 커뮤니티 칼리지 도입 방안 연구 및 적용, 평가체계 담당** 등 부울경 인재 재교육 허브 구축에 기여
- 각 지역의 평생교육진흥원, 각 대학의 평생교육원 등과 네트워크 연계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부록

1. 인재 관련 주요 용어정의

용어	정의
인재	· 특정 분야 기술 및 R&D 능력을 습득한 고학력자
인재 집적	· 인재를 특정 공간이나 지역으로 모으고 그 층이 두터워지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인재 이식	· 인재 과밀지역으로부터 인재 과소지역으로 법령 등의 강제에 의해 분산배치
인재 유치	· 특정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를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 타지역으로부터 유인
인재 양성	· 1년 이내의 단기간 직업교육훈련을 통해 필요로 하는 기능·기술을 습득하는 과정
인재 육성	· 대학 및 대학원 등 장기간 교육을 통해 과학기술 및 R&D 역량을 키우는 과정
지역특화산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의해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시·도의 산업으로서 시·도 지사가 선정하는 산업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 11조, 제2조]
지역산업특화	· 특정지역의 '지역특화산업'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재가 선호하는 창의적인 고부가가치 산업

자료: 김중환·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일자리위원회, p. 8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부록

2. 국가인재분산정책의 개념도와 추진단계



자료: 김중환·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일자리위원회, p. 6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부록

2. 국가인재분산정책의 개념도와 추진단계



국가인재분산정책의 추진방향 및 단계별 목표

자료: 김중환·박성익(2022)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산업특화 인재 집적 방안, 일자리위원회, p. 7

부울경 지역 인재집적 및 인재허브 네트워크 구상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